**# 1 프롤로그**

달그락대는 쇠소리와 함께, 어두웠던 화면 서서히 밝아지면 ...

금속성 물건들이 가득한 차가운 색조의 영안실, 그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자막 : 2000년 2월 9일 - 주한 8 군 용산기지내 영안실

화면 좌측에는 큰 키의 미국인 부소장 맥팔란드가,

반대쪽 멘 우측 끝에는 작은 체구의 한국인 군무원 김씨가 보인다.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말없이 의료도구를 정리하는 두 사람 ...

맥팔랜드, 싱크대 윗 면을 슥 - 손가락으로 문질러본다.

맥팔랜드 : ( 손가락으로 끝의 먼지를 보며 ) 난 세상에서 먼지가 젤 싫어요

김 씨 : ......

맥팔랜드 : 먼지만 보면 짜증나.

김 씨 : 청소 다시 하겠습니다.

맥팔랜드 : 청소는 나중에 하고 ... 이거부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발 아래쪽에서 커다란 박스를 꺼내는 맥팔랜드, 박스안에는 유리병들로 가득하다.

김 씨 : 이거는 ... ( 당황 ) 포르말리인데 ...

맥팔랜드 : 정확히 ‘포름알데히드’ 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낀 포름알데히드’

잘 봐요. 병마다 먼지가 잔뜩 ...

김 씨 : ...

맥팔랜드 : 짜증나. 죄다 싱크대에 갖다 부어버려.

김 씨 : 예?

맥팔랜드 : 전부 폐기처분 하라구요.

김 씨 : 아니 저 그게 아니라 ... 이건 독국물이라서 규정상 ...

맥팔랜드 : ( 말을 끊으며 ) 그냥 하수구에 부으면 돼요.

김 씨 : 하수구에 버리면 한강으루 흘러들어갑니다.

맥팔랜드 : 그래요. 한강에다 버리자구.

김 씨 : 이건 암을 유발하구, 임신 장애두 일으키는 독극물 ...

맥팔랜드 : ( 말 끊고 ) 한강 크잖아. 태평양에 오줌 한 번 눴다구 바닷물이 노래지나?

김 씨 : ......

맥팔랜드 : 명령대로 해요.

맥팔랜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김 씨 ... 영안실에 싸늘한 정적이 흐른다.

( 장면 바뀌면 ) 홀로 남은 김씨, 포름알데히드를 한 병 한 병 수채구멍에 따라붓고 있다.

독극물에서 올라오는 독성가스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김씨, 방독면이 걸려있는 벽 쪽으로 간다.

김씨를 따라 카메라도 트래킹하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늘어서있는 유리병들 ...

거의 400 여병의 포름알데히드 병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늘어서 있다.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작업을 계속하는 김씨.

유리병의 독극물을 계속 쏟아부으며, 다른 손으로는 싱크대를 문질러본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어나는지 유심히 들어다보는 김씨 ...

독극물은 평범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끊임없이 하수구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 화면 위로 슬며시 시작되는 오프닝 음악 ... 불길한 분위기의 음악이다.***

***씬 1 에서 6 까지, 음악과 메인스태프 자막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Opening Credit Sequence***

**# 2 한강 잠실대교 부근. 낮**

자막 : 2000년 7월

구름낀 날씨, 물 속에 다리를 담군 채 낚시중인 낚시꾼 두 명이 보인다.

한 낚시꾼, 문득 물 속에서 ‘ 뭔가 ’ 를 발견한 듯, 유심히 아래를 내려보더니 ...

허리에 차고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물 컵으로 슥 - ‘ 뭔가 ’ 를 퍼담아 올린다.

낚시꾼 1 : ( 컵 속을 들여다 보며) ... 뭐야 이게 ?

낚시꾼 2 : 상당히 찝찝하게 생겼네 ...

낚시꾼 1 : ... 그야말루 돌연변이다, 돌연변이 ...

계속 롱 쇼트로 고정된 화면, 두 사람이 보는 ‘ 컵속의 우언가 ’ 를 관객들은 볼 수 가 없다.

낚시꾼 1 : 죽은건가 ?

낚시꾼 2 : 아까 보니깐 쪼금 움직이는거 같던데 ...

낚시꾼 2, 슬며시 컵에 손가락을 넣어 건들려보는데 ...

순간 으악 ! 소리치며 손을 빼는 낚시꾼 2, ‘뭔가’가 컵 속에서 퍼드득 튀어오른 듯.

덩달아 으악 - 소리치며 물 컵을 떨어뜨리는 낚시꾼 1

낚시꾼 1 : 어, 컵 !

낚시꾼 2 : 뭐였냐 그거 ? 어우 씨 재수없어 ...

낚시꾼 1 : 와 - 큰일날 뻔 했다 ... 딸내미가 사준 컵인데 ...

따내려가던 물 컵을 허겁지겁 다시 챙기는 낚시꾼 1

컵을 물로 헹구고, 찝찝한 듯 입으로 훅훅 분다.

낚시꾼 2 : ... 애가 벌써 뭘 사줘 ? 혜원이가 올해 여섯 살 아닌가 ?

낚시꾼 1 : 개가 올해부터 내 생일을 챙긴다니까 ! 참 나 ...

어느덧 낚시 자세로 돌아와 유유자적 궁시럭거리고 있는 두 사람.

강물도 변함없이 잘 흐르고 ... 모든 것이 평화롭다.

**# 3 한강시민공원 어촌지구. 낮**

자막 : 2001년 가을

한강변을 산책중인 커프남녀, 남자는 오래된 Nicon F - 2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 쪽을 보는 남자, 충격 받은 표정이 되며 ...

남자 : ... 무야 저거 ?

여자 : 왜 ?

남자 : 세상에 ...

남자의 시선을 따라 강물쪽으로 카메라 PAN하면 ...

강물 바로 옆 둔치의 작은 잘대밭에서, 한 신혼부부가 야외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빼입고, 잡초와 갈대들 틈새에서 어설픈 똥폼을 잡는 광경.

남자 : 진짜 엽기다 엽기 ... 꼭 저따우 짓을 해야만 장가를 가는거냐 ?

여자 : 왜 ? 좋구만 ... 찍을땐 저래두, 사진 나온거 보면 멋있다니까.

남자 : 저런건 사진이 아니라 똥이야 똥 ! 네모난 똥 !

중얼대는 남녀와는 상관없이, 갈대밭을 열심히 헤집고 이동하는 신혼부부.

사진사의 지시대로 위치를 잡아보는데, 순간 ...

신 부 : ( 화들짝 ) 엄마야 !

신 랑 : 왜 그래 ?

신 부 : 방금 발등 위로 뭐가 지나갔어 ...

신 랑 : ( 진저리치며) 여기 뱀있나봐 !

발 아래가 섬칫한지, 신부는 폴짝 뛰어올라 신랑의 목을 잡으며 매달린다.

사진사 : 지금 그 포즈 좋습니다 ! ( 중얼 ) 알아서들 잘하네 ...

신 랑 : ( 피식) 야, 뱀은 무슨 ... 한강변에 ...

신 부 : 진짜야, 뭔 축축한게 ... 내 발 위루 스르륵 !

사진사 : 자 - 여기보시고 ! 갑니다 ! ( 빠르게 ) 하나, 둘 ...

‘ 셋 ’ 소리와 함께 철컥 - 눌러지는 셔터.

계속 찡얼대다가 금새 사진 얼굴로 바뀌는 신부, 그 위로 터져나오는 커다란 함성소리 ...

**# 4 대형 호프집.**

귀를 찢는 함성 ... 맥주집 벽의 대형화면을 보며 열광하는 붉은 악마들.

한국과 포르투칼이 16강 티켓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자막 : 2002년 6월 14일

외딴 구석쪽 테이블, 넥타이를 맨 남자와 투피스 정장의 여자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 듯 ...

시끄러운 응원열기 속에서 대화마져 끊어진 채, 쭈삣거리며 앉아있다.

술에 좀 취한듯한 여자는, 지루한 남자보다 축구중계 쪽에 관심이 쏠려있다.

남자 : ( 눈치보며) 제가 사는 아파트가에, 한남동쪽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든가 ?

여자 : 네 ? ... ( 건성으로 ) 네, 했어요.

남자 : 어제요 ... 내가 밤에 잠이 안와가꼬, 디비적디비적 하다가 ...

베란다에 기어나와가꼬 담배를 한 대 딱 - 피는데, 역시 우리 아파트가 조망

하나는 끝내주는기라 ! 한강 야경이 한 눈에 쫘악 다 보인다 이말이예요.

여자 : ... ( 축구중계 힐끗거리며 ) 네 ...

남자 : 그래가, 베란다 난간에 요래 - 기대가꼬, 흐르는 강물을 딱 - 보는데 말이죠 ...

여자 : ( 축구에 빠져들어 ) 어 ... 어 ...

남자 : 저 멀리 한남대교 교각이 요래 - 보이는데 ... 교각 아래쪽에 뭐 이상한기 ...

뭐라 캐야되나 ? 하여튼 뭐 시 - 커먼기 똥덩어리 맨치로 뚝 붙어있는기라 !

억수로 이상하데 ... 근데 너무 멀어가꼬 잘 안보이는 상횐인데

여자 : ( 버럭 ）왼쪽 ! 왼쪽에 영표 ! ... ( 패스 끊기자 ) ... 에이 씨 ... 바 ...

남자 : ( 머쓱하며 ) ... 여부터가 진짜 결정적이라예 !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데이 !

그래서 아있습니까, 내가 방에 있는 캠코다를 퍼뜩 가와갖꼬 ...

점점 더 열을 올리는 남자, 앵벌이 꼬마가 들이미는 껌과 쵸코렛을 귀찮은 듯 밀쳐내며 ...

남자 : 제 카메라가 또 이기 먹어주는 기종이라꼬, 24 배 줌이 되거든요 ...

그래가 마침내, 그 괴물체를 향해가꼬, 줌을 쫙 - 악 땡기니까 ... 이기 ...

여자 : 어 ... 어 ...

남자 : 이 교각밑에 둘러붙은 그 씨 - 커먼 이상한기, 줌으로 보니가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기라 ! 금마 그기 꿈틀 - 하는데, 어떻게 생겼나카면 ...

순간, 귀가 찢어질 듯 폭발하는 함성과 비명 ! 박지성의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

남자가 말하려던 뭔가 ‘ 결정적인 묘사 ’ ... 열광적인 함성 속에 파묻혀 버린다.

골을 넣은 박지성이 미친듯 질주하여 히딩크의 품속으로 와락 - 안기는 중계화면.

덩달아 광분하는 여자, 엉겁결에 남자를 와락 끌어안는다.

남자, 당황하여 쭈삣대면서도 여자의 허리에 슬며시 손을 휘감는다.

붉은 악마들의 광란의 도가니 ...

계속되온 배경음악 또한 한껏 고조되는 가운데, 그 위로 터져 나오는 천둥소리 !

**# 5 한강다리 위.**

남자A : 윤사장님 !

천둥소리 요란한데 폭우를 뚫고 인도 위를 달려가는 두 남자.

카메라 급속히 PAN하면, 한강다리 난간 밖으로 몸을 내민 한 중년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세찬 비바람에 넥타이를 휘날리며, 한 손으로 난간을 움켜쥔 투신 직전의 윤사장.

남자A : 안됩니다 사장님 !

남자B : 윤가 너 왜이러니 ! 부도 첨 나보냐 임마 !

윤사장 : ( 난데없이) ... 니들 ... 방금 봤어 ?

남자B : 뭐 임마 뭐 ?

윤사장 : 밑에 말야 ... 물 속에 ...

직부감 화면, 난간 밖의 윤사장 아래로 검푸르게 출렁이는 한강물이 화면 가득 보인다.

윤사장 : 뭐 커다란게 ... 물 속으루 시 - 커멓게 이 놈들아 ... 정말 못봤어 ?

남자B : ( 잠시 내려다보다가 ) 모르겠는데 ...

윤사장 : 으리그 이 ... 끝까지 둔해빠진 새끼들 !

남자A : ( 쭈삣 ) ...

윤사장 : 아무튼 뭐 ... ( 함숨 섞어 ) ... 잘먹구 잘 살아라, 들 ...

주저없이 손을 놓아버리는 윤사장 !

절규하며 달겨드는 두 남자의 돼지 멱따는 소리

한강물에 풍덩 - 쳐박히는 윤사장, 순식간에 물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

카메라는 물 속의 ‘ 뭔가 있다는 ’ 지점을 향해 직부감으로 고정된다.

윤사장을 집어삼킨 시커먼 한강물, 세찬 빗줄기 속에 출렁인다.

자막 : 이틀전

**# 6 메인 타이틀**

최고조에 달했던 음악, 물결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고 ... 서늘한 빗소리만 화면 위에 남는다.

멀리 한강철교 너머로 진한 먹구름과 회색빛 하늘.

아름다우면서도 음산한 풍경 위로 조용하게 떠오르는 메인 타이틀 ...

**괴물**

**# 7 한강둔치, 매점주변**

자막 : 현재

화면가득, 침을 질질 흘리며 낮잠 자는 한 남자 ... 박강두 ( 남. 36 ) 의 얼굴이 보인다.

매점 판매대에 뺨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진 박강두

그런 강두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눈이 큰 꼬마에의 얼굴.

시선은 잠든 강두에게 고정한 채, 손을 슬며시 판매대의 외제과자 쪽으로 뻗는 꼬마.

살며시 과자에 손길이 닿는 순간 ... 휙 -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더 큰 남자애,

꼬마의 등을 쿡 찌르며 눈치를 준다. 큰 아이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면 ...

언제부터 와있었는지, 매점주인 박희봉 ( 남. 59 ) 이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바싹 오그라들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시작하는 눈이 큰 꼬마.

비숫한 얼굴에 지저분한 옷차림 ... 영락없이 앵벌이 형제의 모습이다.

희봉이 얼굴로 ‘ 이놈 - ’ 표정을 지어보이자 후다닥 도망가는 형제.

이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 그저 침을 질질 흘리며 잠만 자는 강두.

한심한 듯 바라보는 희봉의 시선으로, 강두 뺨 위에 앉아 피를 빠는 모기 한 마리가 보인다.

무자비하게 퍽 - 강두의 뺨을 내려치는 희봉

놀랍게도 ... 피터진 모기의 시체를 뺨에 붙인 채, 계속 코를 고는 강두.

그런 아들의 모습조차 덤덤하게 바라보는 희봉, 뺨에 붙은 모기시체를 손으로 슥 띠어낸다.

햇살이 쨍한 둔치 ... 주말의 인파들이 불어난 듯, 매점 주변도 점점 북적거린다.

희봉, 음료수를 산 여자에게 거스름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

희봉 : 가만 ... 아까 동전 있었는데 ...

엎드려 자는 강두의 얼굴을 붙잡아 슥 - 들춰보는 희봉.

강두의 뺨 아래 서너개의 동전들이 깔려있다.

그중 백 원짜리 한 개는 끈적이는 강두 뺨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고 ... 가관이다.

뺨에 붙은 동전까지 띄어내 거스름돈을 치르는 희봉

머리를 받쳐 들었던 손을 놓자 쿵 - 하고 강두의 얼굴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잠에서 안깨어나는 강두 ... 조용히 한 숨을 내뱉는 희봉

순간, 화면 밖에서 ‘ 아빠 - ’ 하고 부르는 여자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자 강두, 언제 잤냐는 듯 벌떡 머리를 일으키며,

강두 : ( 두리번 ) 현서 ? 벌써 왔니 ?

침을 ‘ 습 - ’ 들이키며 주위를 둘러보는 강두, 교복입은 여중생 하나가 휙 지나가지만,

자기 딸이 아닌 것을 깨닫고는, 다시 눈을 감으며 엎드리는데 ...

희봉 : (버럭) 깨라 쫌 ! 깬김에 !

아들의 얼굴에 과자통을 휙 - 집어 던지는 희봉, 정통으로 명중한다.

강두 : 아우 ... 아부지 ...

희봉 : 정신 좀 차려 임마 ! 저기 4번 돗자리에 오징어 한 마리여. 빨리 궈!

**# 8 매점 옆 야외테이블**

오징어를 구우려는 강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딱 - 딱 - 돌리는데 ...

테이블 위의 브루스타, 아무리 해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

계속 안되니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보는 둥, 갖은 짓을 다하는 강두.

쟁반가득 맥주를 들고 강두 옆을 지나던 희봉, 가스착탈 레버를 꾹 눌러주고 지나간다.

부탄가스가 끼워지며,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불이 켜진다.

입을 헤 - 벌리고 좋아하며 오징어를 굽기 시작하는 강두,

냄새를 맡자 군침이 도는지, 오징어 다리 한 개를 슬쩍 뜯어 먹으며 희봉쪽을 보는데 ...

고수부지 저 편에서 교복차림의 조그만 여중생 하나가 오는 것이 보인다.

강두의 어린 딸 박현서 ( 14 ) 다.

강두 : 현서야 ! ( 손 흔든다 )

현서 : 아 - 아 - 빠 !

오징어를 불 위에 올려놓은 채, 현서 쪽으로 후다닥 가버리는 강두

불타는 오징어에서는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른다.

또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희봉, 잽싸게 오징어를 불에서 빼낸다.

만사에 체념한 얼굴의 희봉너머로 ... 저멀리 강두가 현서를 들쳐 안는 모습 보인다.

**# 9 매점내부**

조그만 단칸방처럼 아늑한 매점 내부.

현서의 조그만 손이 황도 캔 원터치 뚜껑을 딱 - 뜯는다.

강두, 현서에게 소독저를 건네준다.

소독저를 캔 위로 가로질러 황도 덩어리들이 쏟아지지 않게 막은 다음,

황도 국물만 쭈 - 우욱 들이키는 현서 ... 강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편안한 자세이다.

귀여운 듯 내려다보는 강두, 자기도 덩달아 들 - 클한 표정이 되어

강두 : 아으 ... 달지 않냐 ?

계속 황도 국물을 마시며, 고개만 좌우로 흔들어 ‘ 아니 - ’ 하고 답하는 현서

강두 : 어째 넌 하루에 꼭 하나씩 그걸 그르케 ... 들이키냐 ...

현서 : 크 - 아 ... 시원하다 ( 황도캔을 강두에게 넘겨준다 )

강두 : 건더기도 좀 먹지 ...

건더기만 남은 캔 속에서 젓가락으로 황도를 우적우적 꺼내먹는 강두

현서, 발딱 일어나 앉으며 TV를 켜면, 주말오후 뉴스가 나온다.

***기자 : 이틀전 한강에 투신자살했던 윤창건설 윤창수 사장의 사체가 오늘 오전 7시경,***

***서강대교 아래 밤섬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심하게***

***훼손된 윤사장의 사체는 상반신 일부와 왼쪽 다리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

현서 : 아우 끔찍해 ... 왜 아직두 뉴스야 ? 중계 시작할 때 됐는데 ...

강두 : 505번 눌러봐 ... 운동 채널.

현서 : ( 채널 돌리고 ) 아 ! 나온다 !

스포츠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전국체전 양궁결승전 ... 현서가 TV 앞으로 바싹 다가간다.

침착한 표정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박남주 ( 여. 25 ) 의 얼굴이 화면가득 보인다.

현서 : 고모 파이팅 ! 아자아자아자 !

강두 : ( 저음으로 ) 박남주 ! 박남주 !

둘다 : 남주박 ! 남주박 ! 남주박 !

맥주캔 들고 똑같은 포즈로 외쳐대는 두 사람, 영락없는 닮은 꼴 부녀다.

매점 창문 밖에서 희봉도 고개를 슥 들이밀며 ...

희봉 : 시작한겨 ?

현서 : ( 맥주캔 휙 감추며 ) 응 ! 여자 개인결승 ! 할아버지 안 봐 ?

희봉 : 내는 ... 딸내미 시합은 도저히 못보겄어, 조마조마해서 ...

저기 강두 너 ... ( 서늘하게 ) 이리 좀 나와봐.

**# 10 매점 밖, 둔치**

희봉 : 방금 4번 돗자리 손님한테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

강두 : ......

희봉 : ( 심각하게 ) 다리 하나 ... 니가 먹었지 ?

강두 : ( 끄덕 ) ...

희봉 : 이런 썩을 ! 손님꺼에 선을 대 ? ... ( 새 오징어와 맥주가 든 쟁반 내밀며 )

4번 돗자리에 빨리 갖다드려 ! 써비스라구 얘기하구 이눔아 ...

쟁반들고 허겁지겁 4번 돗자리 쪽으로 달려가는 강두, 그런데 ...

웬일인지 4번 돗자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돗자리에도 사람들이 없어졌고 물건들만 남아있다.

이상하여 둘러보니 ... 돗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모두들 둔치 끄트머리에 몰려가 있다.

쑤근쑤근 술렁이는 사람들, 멀리 한강철교 아래의 ‘ 이상한 물체 ’ 를 보고있다.

교각 아래면에 거꾸로 매달린 독특한 형상의 물체 ...

워낙 먼 거리인 데다가, 강한 직사광선이 만든 ‘ 찐한 그늘 ’ 속에 매달여 있다보니,

이상한 물체의 형체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는다.

사람 1 :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냐 근데 ...

사람 2 : 무슨 ... 공사장빈가 ?

사람 1 : 쬐끔씩 꿈틀거리는거 같은데 ?

강두도 호기심이 발동, 사람들 쪽으로 다가서는데 ...

갑작스런 호르라기 소리 ... 인라인 동호회 사람들이 바람처럼 쌩 - 지나간다.

강두 코앞을 스칠 듯 지나가는 인라인 스케이터들,

쟁반과 맥주캔을 떨어뜨릴 뻔 하는 강두, 햇살 아래 현기증이 나는 것 같다.

**# 11 매점 내부**

TV 화면, 남주가 쏜 화살이 과녁 한 복판의 카메라 렌즈를 박살낸다 ! 열광하는 현서 !

안보겠다던 희봉도 어느덧 매점 창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중계방송에 열중해 있다.

TV 속 남주가 활 시위를 쫘 - 악 당긴 채 그대로 있는 동안,

덩달아 어금니를 꼭 - 깨물고 얼굴이 오그라든 희봉,

희봉 : 으 ... 쏴 !

**# 12 둔치**

풍덩 - 한강 물 위로 떨어지는 괴물체,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더더욱 신기해하여 웅성거리는 사람들,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

잠시 사라졌던 괴물체가 어느덧 사람들 발로 앞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게 보인다 !

놀라운 듯 탄성 지르는 사람들, 더욱 바싹 물 가로 다가선다.

물이 워낙 뿌옇고 탁해서 괴물체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 크고 시커먼 어떤 것 ’ 이 물 속에서 빙빙 도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느새 인파 수준으로 불어난 사람들 ... 마치 공짜 돌고래쇼에 구경 온 듯,

호기심에 달아올라 탄성을 지르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즐겁게 재잘거린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온 강두,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

들고있던 HITE 캔맥주 하나를 괴물체 머리 위로 풍덩 내던진다.

첨버덩 - 뿌연 물 속으로 가라앉는 맥주캔 ...

잠시 움직임을 멈추는 괴물체, 머리 위로 스르르 내려오는 캔맥주를 의식하더니,

입을 벌려 꿀꺽 HITE 맥주캔을 삼켜버리는 듯 !

우와 - 탄성 내뱉는 사람들

그러나 괴물체, 더 이상의 재롱 ( ? ) 없이, 깊은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지켜만 보던 사람들, 일제히 말문이 터지며

여자 : 와 - ( 찍던 폰카 집으며 ) 캔째루 삼켰나분데 !

강두 : ... 따서 줄걸 ...

남 2 : 뭐야 근데 도대체 ... 저렇게 큰 물고기도 있나 ?

방송국에 연락해야 한다며 핸드폰 꺼내는 청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동남아 노동자들,

군대시절 전방근무 때 DMZ 내 호수에서 초대형 물고기를 봤었다고 떠드는 중년남자 등등,

너도나도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사람들 ...

강두는 뭔가에 홀린 듯 물 속을 응시하는데, 문득 고요한 수면위로 붕어 시체가 떠오른다.

양미간을 찌푸리는 강두,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붕어로 모아진다.

붕어의 반토막난 몸에서 피와 내장이 질질 흘러나와 있다.

어리둥절 바라보는 사람들. 잠시 흐르는 적막 ...

순간 ... ! 거대한 검은 형체가 물 속으로 솟구치며 올라온다 !

붕어 반토막을 휩쓸어버리며 - 폭발하듯 물 위로 올라오는 괴물 !

비명 지르며 흩어지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깔아 뭉개는 괴생물체.

순식간에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돌변하는 한강변.

둔치 끄트머리의 가파른 경사를 뛰어오르며 뒤엉켜 넘어지고 서로 짓밟히는 사람들 ...

그 중 넘어진 한 여자를 물어뜯는 괴생물체.

여자의 몸에서 솟구치는 선혈, 시멘트 바닥 위로 시뻘건 피냇물이 흐른다.

충격과 카오스, 절규와 비명의 아수라장

발이 느려 뒤처지거나, 땅바닥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죄다 괴물체의 밥이 된다.

둔치 평면 위로 올라온 고생물체, 사람 많은 광장 한 복판에 풀어놓은 스페인 투우 소처럼,

난폭하게 둔치를 돌진하며 사람들을 들이 받고, 쓰러뜨리고, 짓밟는다.

쓰러져 실신한 사람들을 무차별 물어뜯는 괴생물체의 잔인한 포식 !

**# 13 매점 내부**

와 ! - 환호성 지르는 현서와 희봉.

희봉도 어느새 매점 안에 들어와 TV 앞에서 열광하고 있다.

화면 속에서는 또 10 점 만점을 쏜 남주가 모자를 벗으며 땀을 닦는다.

현서 : 저 모자 저거 내가 사준거 ! 저거 쓴게 젤 예뻐 !

선수 뒷 편에서 찍은 슬로우모션 Replay 화면 ...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과녁 한복판에 꽂히는 남자 화살의 환상적인 궤적.

희봉 : 진짜 예술이여 예술 !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

현서가 워낙 크게 틀어놓은 TV 중계방송 볼륨 때문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과 비명소리는 어렴풋한 소음 정도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예민한 희봉 ... 뭔가 이상한지, 매점 바깥에 신경이 쓰인다.

**# 14 둔치**

미친 듯이 줄행랑을 치는 강두의 겁에 질린 얼굴.

뒤엉켜 함께 도망가는 사람들 틈에서 강두가 힐끗 뒤를 돌아보면 ...

한 뚱뚱한 남자가 둔치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 사이로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뒤를 성큼성큼 따라가는 괴생물체 ...

당황결에 방향을 잘못 택한 뚱뚱남, 좁게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몸이 꽉 - 악 끼어버린다.

터벅터벅 다가오는 괴물, 차 틈에서 몸을 빼내려고 꿈틀거리는 뚱뚱남.

그러나 필사적으로 몸부림 칠수록 살들만 출렁일 뿐 ...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성큼 다가온 괴물, 차 사이를 벌리며 치고 들어가 뚱뚱남을 ‘ 집어삼키기 ’ 시작한다 !

안전거리로 흩어진 인파들, 멀찌감치 둘러선 채, 처참한 순간을 지켜본다.

봉고차와 트럭사이에서 뚱뚱남을 조금씩 삼키는 괴생물체,

차체 너머로 괴물의 등라인과 몸체 일부만 보였다 안보였다 한다.

이때, 인파 속의 덩치 큰 백인남자 하나가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뛰쳐나온다 !

애인으로 보이는 한국 여자가 뜯어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면서,

용감한 백인남자, 돌덩이를 괴생물체 쪽으로 힘껏 던진다 !

괴물의 등짝에 맞고 퉁 - 튕겨져 나가는 돌덩이.

괴물은 돌 맞은 등짝을 한번 꿈틀하더니, 뚱뚱남을 완전히 입 속으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백인남자 쪽으로 뛰쳐나오는 괴물 !

질겁하며 도망치는 백인남자를 순식간에 따라붙어, 거칠게 남자를 덮쳐버린다.

왼팔을 물어 뜯기면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날리는 백인남자, 주차된 트럭 밑으로 굴러들어간다.

피가 콸콸 흐르는 왼팔을 움켜지며 몸을 웅크린 백인남자의 시점으로,

조용히 머리를 낮춰 트럭 밑을 들여다보는 괴물의 기분나쁜 얼굴 ...

트럭 밖으로 흘러나온 백인남자의 땅바닥 피를 혀로 슥슥슥 핥고 있다 !

보다못한 강두, 아래에 시멘트 덩어리가 달린 도로표지판을 번쩍 집어든다.

의외의 괴력을 발휘, 투포한 선수처럼 도로표지판을 빙빙 돌리는 강두,

괴물 쪽으로 다가가며 도로표지판을 휘 날려버린다 !

날아간 표지판, 시멘트덩어리 부분이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한다.

끼에엑 - 괴상하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지르며 강두 쪽을 돌아보는 괴물

처음 보여지는 괴물의 정면 얼굴, 기묘한 느낌이다.

잠시 서로를 마주보는 괴물과 강두 ... 순간 강두를 향해 달려오는 괴물 !

화들짝 달아나는 강두, 사람들을 뒤따라 정신없이 도망친다.

이때, 도망치는 인파들을 정반대로 헤치고 달려오는 한 사람 ... 희봉이다.

마주 달려오는 희봉과 강두의 급박한 랑데부. 강두의 팔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희봉

희봉 : ( 뒤 돌아보며, 믿기지 않는 듯 ) 저게 도대체 뭐여 !

**# 15 매점 내부**

현서 : 쫄거 없어 !

TV를 향해 소리치는 현서, 숨이 넘어갈 듯 긴장된 표정 ...

브라운관 속 남주 또한 승부를 가르는 마지막 화살에 온 정신이 집중된 얼굴

현서 : 놔 - !

순간, 현서의 지시 ( ? ) 대로 쉭 - 날아가는 마지막 한발, 그대로 표적 한가운데를 꿰뚫고 !

현서 : 꺄아 - ! 금메달 ! ( 벌떡 일어나며 ) 아빠 ! ... 할아버지 !

**# 16 매점 밖 - 둔치**

기뻐 날뛰는 현서, 매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 나오는 순간 ...

미친 듯 달려오는 ...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인파들 앞에 갑자기 서게 되는 현서

혼비백산 달려오는 강두와 희봉,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괴생물체 !

희봉 : 현 - 서야 !

강두 : ( 마음만 급하여 ) 야 ! 으아 !

갑작스러운 ‘ 초현실적 ’ 상황에 넋이 나간 현서, 온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데 ...

죽어라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낚아채 듯 현서의 손목을 움켜잡고 같이 뛰는 강두.

사람들 틈바구니를 거칠게 앞질러 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발이 얽혀 우당탕 넘어진다.

연이어 뒤엉키며 엉망진창 넘어지는 현서, 희봉, 사람들 ...

아수라장 속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현서의 손을 잡고 뛰쳐나가는 강두

가냘픈 손목을 움켜쥐고 정신없이 돌진하는데 ...

문득 옆을 돌아보니, 강두 손에 잡힌 아이는 비슷한 교복을 입은 엉뚱한 다른 소녀 !

소녀는 한 손은 강두에게, 한 손은 자기 아빠에게 붙들린 채 정신없이 뛰는 중 ...

질겁하는 강두, 화들짝 손을 놓으며 뒤를 돌아보면,

조금 전, 사람들과 뒤엉켜 넘어졌던 자리에서 홀로이 몸을 일으키고 있는 현서 !

발목을 접질린 듯, 고통스러운 얼굴로 간신히 일어나면서

현서 : ... 아빠 !

강두 : 으아 - !

비명지르며 현서에게 다시 달려가는 강두와 희봉

이미 현서 바로 뒤까지 바싹 달려온 괴물,

차가 우회전하듯 강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꼬리로는 현서를 낚아채 버린다 !

달려온 속도 그대로 괴물에게 달려드는 강두, 현서를 휘감은 꼬리에 매달리려 하지만,

간단한 꼬리짓 한번에 무참하게 떨어져나가 나뒹굴고 ...

괴물은 현서를 꼬리에 휘감은 채 물속으로 풍덩 - 들어가 버린다 !

경악하며 그 자리에 털퍽 주저앉는 희봉.

정신없이 강물에 뛰어드는 강두, 필사적으로 괴물을 향해 헤엄쳐 가지만,

마음만 급할 뿐, 엉성한 수영폼 탓에 몸은 거의 제자리이다.

잠시 후,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괴물,

원효대교 교각 아래 둥그런 시멘트 원판 부분으로 기어 올라간다.

여전히 꼬리에 휘감겨 있는 현서, 고통스럽게 강물을 토해내더니 ...

완전히 탈진한 듯 시체처럼 축 - 늘어진다.

흩어졌던 인파들, 어느새 희봉 주변으로 모여들어 강두와 괴물 쪽을 보고 있다.

강두를 향해 소리지르는 희봉, 물로 뛰어 들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뜯어말린다.

고개숙인 괴물, 마치 사람이 토할때의 자세를 하고 입을 꿈지럭 거리더니,

입 안에서 뭔가를 쭈 - 욱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주차장에서 삼켰던 ‘ 뚱뚱한 남자 ’ 이다.

고스란히 뱉어져 나오는 뚱뚱남의 사체, 고깃덩어리처럼 시멘트 위로 철퍽 - 떨어진다.

삼키기가 힘들었는지 ... 뚱뚜남을 뱉어놓고는 캑 - 캑 기침 ( ? ) 을 하는 괴물

이제 ‘ 아담한 크기 ’ 의 현서를 향해 커다란 아가미를 들이민다.

강물 한 복판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강두 ...

그러나 괴물은 저항도 못하는 현서를 머리와 상체부터 집어 삼키기 시작한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 ... 현서의 가냘픈 종아리만 괴물의 입 밖으로 삐죽 나와있다.

둔치 끄트머리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

괴물은 태연히 현서의 종아리 마져 꿀꺽 - 삼켜버리고,

뱉어놓았던 뚱뚱남 또한 꼬리로 슥 휘감더니,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버린다.

새파란 하늘, 푸르른 강물, 반짝이는 햇살 ... 끔찍이도 아름다운 한강.

망연자실,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강두.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결을 멍하게 바라본다.

**# 17 뉴스화면 - 매점 내부**

***엄기영 : 실로 어 - 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굳은 얼굴의 엄기영 앵커가 진행하는 < 뉴스 속보 > TV 화면.

일반시민이 제보한 조악한 동영상과 각종 CCTV 에 찍힌 괴생물체의 난동모습.

화면 아래로는 부상자와 명단 ...당산여중 1학년 ‘ 박현서 ’ 의 이름도 지나간다.

***기자 : 합동재해대책본부 측은, 한강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괴생물체를 생포 또는 사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괴물체를 추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어 ...***

카메라 뒤로 빠지면 ... 여지껏 보여진 뉴스화면이 매점 안 TV 엿음이 드러난다.

멍 - 한 얼굴로 매점 안에서 돈과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 강두.

뉴스화면을 힐끔힐끔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는 듯, 물고기처럼 멍한 얼굴이다.

말없이 매점 바깥을 정리중인 희봉 역시 돌처럼 굳은 얼굴이다.

**# 18 매점 밖, 한강둔치**

바람 부는 둔치 위로, 희봉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터덜터덜 따라가는 넋나간 강두.

둔치 위에는 경찰과 군인들, 순찰차 등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저녁노을이 지는 강물 위로는 경찰선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수색 작업중이다.

순찰차 : ( 스피커 ) 시민공원 매점 운영자 여러분들 ! 최대한 빨리 철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시부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둔치 모든 구역이

폐쇠조치 되겠습 ...

**# 19 합동 분향소**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는 강두와 희봉 .. 눈물자욱과 때국물로 얼굴이 엉망이다.

허름한 체육관에 꾸며진 합동 분향소, 집단 참사때 늘 보아왔던, 매우 ‘ 한국적인 ’ 분위기다.

필승관 입구 쪽,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양궁선수 박남주가 들어선다.

츄리링 차람인 남주 ... 손에는 금메달을 덜렁 들고 있다.

현서의 영정사진을 확인하자, 와르르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리는 남주.

그런 남주와 가족들을 향해 지독히 쎈 라이트가 비춰지며 방송국 카메라가 다가온다.

들고 온 금메달을 현서의 영정사진 앞에 떡 올려놓는 남주.

메달을 보자 왠지 질풍노도처럼 감정이 폭발하는 가족들 ...

강두 : 현서야 ! ... 금이다 금 !

희봉 : 애야 ... 니 고모가 ... 고-올드 메달 ... 으어억 ...

분향소 입구에서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는 20대의 한 청년,

흰 얼굴에 냉정한 눈빛으로 걸어오는 청년 ... 박남일 ( 28 ) 이다.

손에 든 ‘ 국화꽃 향기 ’ 를 잠시 음미하고, 현서의 영정 앞에 침착하게 국화꽃을 올리는 남일.

다른 식구들,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런 남일의 모습을 숙연하게 지켜본다.

영정사진 속 현서의 귀여운 얼굴을 냉정하게 응시하는 남일,

문득, 갑자기, 순식간에, 푸아악 - ! 울음이 터진다.

억눌렀던 울음이 다시 폭발하여, 가족들 미친 듯이 통곡한다.

온 가족이 다 모이자 감정이 더욱 상승하는 듯 ... 원초적으로 뒤엉키는 네 식구.

방광하며 울부짖는 강두를 진정시킨다며, 강두의 상체를 온 몸으로 누르는 희봉,

마치 그레코로만형 레스링 시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

강두 가족의 울음이 전염되듯 번져나가 다른 희생자 식구들도 통곡이 거세어지는데,

화면 뒤편으로, 경비원 복장의 남자가 분향소로 들어오며 ...

경비원 : 경기 6 디에 이 - 사 -팔 - 칠 ! 이, 사, 팔, 칠, 아반떼 !

통곡하던 어떤 아줌마, 화들짝 차 키를 꺼내들며 경비원 쪽으로 달려나간다.

어수선하다 못해 거의 부조리한 분위기.

강두 : 으으으 ... 현서야 ... 억울해 ! ... 현서야 ...

남일 : 근데 ... ( 툭 - 치며 ) 니가 뻘짓했다메 ...

강두 : ... ?

남일 : 얘기 다 들었어 ... ( 툭 툭 치며 ) ... 엉뚱한 애 손 붙잡고 뛰었다메 !

남일,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손바닥으로 강두를 철썩 - 철썩 치기 시작한다 !

남일 : 나자빠진 현서를 내비두구 ... ( 철썩 ) ... 다른집 딸내미를 ... !

강두 : 그게 ... 내가 ... 으에엑 ...

남일 : 니가 아빠냐 ? 그러구두 니가 ... ( 퍽 )

울분과 히스테리를 못이겨 날뛰는 남일, 얻어맞으며 더 크게 우는 강두.

뜯어 말리는 희봉, 눈물만 쏟아 붇는 남주 ... 엉망진창이다.

**# 20 합동 분향소. 시간경과**

적막이 깔린 심야의 분향소 ... 울고 얻어맞고 한 덕분에 눈두덩이 잔뜩 부어오른 강두,

시합 직후 권투선수의 얼굴을 한 채, 꼴사나운 포즈로 바닥에 누워 잠들어있다.

남일 : 잠이 오냐 ? 잠이 와 ? ... ( 발로 툭 차며 ) 이 상황에서 잠이 와 ?

희봉 : 고만해라. 니 형이 원래 잠이 많잤냐.

잠든 강아지 쓰다듬 듯, 희봉이 강두의 머리를 어루만지자,

강두는 자기 바지 속에 손을 쑤 - 욱 집어 넣어, 불알을 주물럭주물럭 쓰다듬는다.

민망하여 고개 돌려버리는 식구들 ...

넋이 나간 남주는 현서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남주 : 왜 사진을 이걸 썼어요 ? 내가 사준 남방 입구 찍은거, 그게 훨 이쁜데 ...

희봉 : ... 저 사진은 꼭 지 엄마 닮게 나왔어.

남주 : 행여 ! 애민 뚝 싸질러놓구 도망간게 벌써 13년 쩬데 ...

남일 : ( 침 흘리며 자는 강두를 보며 ) 나라두 도망가겠다.

희봉 : 사고처서 난 애를 사고 처서 보낸거여 ...

남일 : 씨발 무슨 교통사고면 황당하지나 않지 ... 어쩌다 보도못한 짐승한테 ...

희봉 : 옛 어른들 말씀 애두, 사람 해친 짐승은 반드시 사지를 절딴내서 끝장을

보는게 ... 그게 사람된 도리라구 그랬는데 ...

남일 : ( 생각 ) ... 그럼 장씨 아저씨한테 연락해봐. 아부지 그아저씨랑 친하잖어.

희봉 : 총포사 장씨 형님 ?

父子의 허망한 대사가 오가는 동안, 노란 우주인 복장 ( ? ) 을 한 사람이 뒤로 지나가고 있다.

남일 : 그래. 그 집이 짐승 잡는데 전문아냐. 총두 많구 ...

희봉 : 그려 ... 내 손으로 직접 쏴죽여야 분이 좀 풀리겠다.

셋노란 옷에 괴상한 마스크를 한 남자가 유가족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괴이한 풍경.

조심스레 걸어오다 발이 꼬여 퍽 - 쓰러지는 노랑옷 사나이

노랑 1 : ( 황급히 일어서며 ) 여러분 ! 여기 주목 ! ( 손벽 짝짝 ) 자 여러분들 중에,

이번 여의도 사건형장에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십쇼 !

레크레이션 지도교사 풍으로 호들갑스럽게 소리치는 노랑 1 ... 뜨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노랑 1 : ( 목청 더 올리며 ) 여러분들 생명과 관련된 아 - 주 중요한 문젭니다 !

현장에 계셨던 분 ! 그리고 그런 분들과 접촉한 분들 ! 전부 다 손 번쩍 !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손을 드는 사람들, 거의 다 손을 든다.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는 강두, 손 든 희봉을 보고는 무조건 손을 든다.

남일은 몹시 티꺼운 듯, 삐딱하게 노랑 1을 바라보며

남일 : 근데 저 씨방새는 ... 뭐가 뭔지 설명도 안 해주고 ...

남일 쪽을 힐끗 돌아보는 노랑 1 ... 노려보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밖에서 들려오는 두두두두 - 진동 소리가 점점 더 커져온다.

노랑 1 : 여러분 ! 지금쯤 아마 텔레비전뉴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을거 같은데요 ...

두리번 거리다 분향소 구석 쪽의 대형 TV 를 발견, 스위치를 켜는 노랑 1

노랑 1 :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상황설명은 뉴스로 대신 합니다 !

자, 뉴스가 ... (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 ... 안 나오네요 ... ( 머쓱 ) ...

아무튼 ! 지금 이 순간 저의 통제에 따라서 빨랑빨랑 움직여 주실수록 !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이말이야 ! 지금 바깥에 수송버스가

와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

노랑 1 이 계속 떠드는 동안, 노랑 2, 3 등이 방역기를 들고 분향소로 들어온다.

아가부터 커져오던 두두두 - 소리의 정체가 들어나는 순간,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새하얀 소독 연막이 뭉게뭉게 덮쳐온다.

노랑 1 : 아 참 ! ( 큰소리로 ) 혹시 괴생물체랑 직접 접촉하신 분 있습니까 ?

희 봉 : ... 어 ...

노랑 1 : ( 악쓰듯 ) 괴물 직접 만지신분 !

잠시 망설이던 강두, 눈치보며 뻘쭘하게 손을 들고는 ...

강두 : ... 저기 ... 꼬리 쪼끔 ...

노랑 1 : 으와 ! 그 자리에 가만히 ! 움직이지 말고 !

강두에게 달려와 연막을 집중적으로 뿌려대는 노랑들.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는 강두 ... 그런 강두를 짐짝처럼 거칠게 끌고 나가는 노랑들.

강두 : 어 ... 어 ... 아부지 !

희봉 : 강두야 !

당황하며 따라가는 식구들 ... 다른 유가족들도 우왕좌왕 수송버스로 끌려나가고,

켜놓았던 TV 에서는 이제야 < 뉴스 속보 > 가 나오기 시작한다.

불긴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뿌연 연기 속의 뉴스환면

***앵커 : 많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번 한강 괴생물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의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세균병기’ 라는 극단적 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이번 괴생물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잡니 다.***

**# 21 수송버스**

수송버스 천장에 달린 TV로 같은 뉴스를 보는 희봉, 남일, 남주 ... 다른 유가족들.

***기자 : 이번 한강둔치 괴생물체 난동사건때 괴물과 맞서 용감히 싸우다 한쪽팔을 잃은***

***미 8 군 소속 도날드 하사관. 사고 직후 미군내 의료시설로 후송된 도날드 하사는 고열 을 수반한 구토증세와 함께 상반신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붉은 반점이 가득한 도날드 하사관 ( = 씬 14 의 백인남자 ) 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일제히

‘ 으웩 - ’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

**# 22 앰블런스**

앰블런스에 따로 태워진 강두, 겁에 질린 얼굴로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다.

***기자 : 미군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도날드 하사관의 몸에서 괴생물체와 접촉한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정체모를 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 23 수송버스**

***기자 : 현재 바이러스 샘플을 미국 질병관리 통제센터 즉 CDC로 보낸 미 8 군***

***의료진들은 이 괴바이러스가 인체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전염성 또한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사에 돌입한 CDC측은 AIDS바이러스의 근원으로 알려졌던***

***남아프리카 푸른눈 원숭이나 SARS 바이러스의 출발점 이었던 중국 사향고야이의***

***경우처럼 이번 괴생물체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호스트’ 즉 ‘숙주’ 숙주***

***생물체임이 확실시 된다고 업급했습니다.***

버스 천정의 TV화면을 보던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으로부터 몸을 슬쩍 떨어뜨린다.

**# 24 한강변. 밤**

***기자 : ... 이에 당국은 괴생물체 출현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들을***

***전염병 예방법 42조에 의거하여 시내 모처 대형병원에 완전히 격리수용시켰으며 괴생물체***

***의 활동구역으로 추정되는 한강 둔치 시민공원 대부분 지역을 1급 오염 및 방역구역으로 선포 완전 봉쇄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에 배치됐던 모든 경찰과 군병력 또한 추가 감염***

***의 위험을 고려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세균전 관련 특수부대 요원들과 방역관 련 인원 등 극소수 인력들만 한강변에 잔류시키기로 ...***

불길한 음악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면 가득 보이는 < 출입엄금 : 오염지역 > 표지판에서 포커스 이동하면, 서둘러 둔치를 빠져나오는 경찰과 군병력의 철수 광경이 보인다.

***기자 : 한편, 오늘 오후 성산대교 부근 둔치를 순찰중이던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당국은 괴생물체의 습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가운데 ...***

완전히 텅 - 빈 한강 둔치위로, 흰 연기를 내뿜으며 ‘ 고독하게 ’ 달려가는 방역차량.

밤안개처럼 흩어지는 소독약 연기 사이로 한강다리 밤조명이 쓸데없이 빛난다.

**# 25 격리수용 병원**

일반 병원과는 다른 ... 야전병원이나 포로수용소 분위기의 독특한 격리수용 입원실.

사람들이 줄지어 누워있고 구석 쪽 비닐커튼 속에 이중격리된 강두가 있다.

복수 마스크로 무장한 의료진, 강두의 체온을 재고 맥박을 재고 온갖 조사를 하며 ...

희봉 : 저기 ... 집에는 언제쯤 갈 수 있는겨 ?

의사 : 집에 못갑니다.

강두 : ( 겁이 벌컥 ) 아빠 ! 나 죽는거야 ?

희봉 : 입방정 떨지말구 ! 선생님 시키는대로 해 !

강두 : 등이 자꾸 가려워 ( 긁으며 ) 등이 이상해 ! 안에 뭔가 있는거 같어 ...

희봉 : 너 목욕 안해서 그런거여.

간호사 : 조용히 하시구요 ... 움직이지 마시구요 ... ( 체온계를 귀에 대고 쏜다 )

박강두씬 검사할게 많으니까요 ...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면 안되구요 ...

**# 26 동. 시간경과.**

누군가의 냉장고에서 골뱅이 캔을 몰래 꺼내는 강두.

모두 자고 있는 새벽의 병동, 고요한 정적 속에 가습기 수증기만 무럭무럭 퍼지고 ...

회전식 캔따개로 깡통을 따려는 강두, 도구를 잘 쓸줄 몰라 헛 손질로 버벅댄다.

침대에서 자던 희봉,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강두 손에서 깡통을 뺏더니,

반대쪽으로 휙 뒤집는데, 그 쪽에는 손 쉬운 원터치 캔 손잡이가 있다.

눈을 감은 채 뚜껑을 퍽 - 따서 건네주고 다시 쓰러져 자는 희봉, 마치 몽유병 환자 같다.

맨 손가락으로 골뱅이를 꺼내 먹는 강두, 클로즈업된 골뱅이의 다소 징그러운 형태들.

강두, 등짝이 계속 간지럽고 이상한지 환자복을 들춰 자신의 등을 벽거울에 비춰본다.

끈적한 액체가 쭈욱 - 떨어지는 골뱅이 덩어리의 이미지

거울에 비친 강두의 등뼈를 향해 카메라 서서히 줌 인 하는데 ...

순간, 갑자기 지 - 이 - 익 진동소리 ...

격리 비닐커튼 사이로, 강두의 핸드폰이 진동에 떨며 뱅그르르 - 도는 모습이 보인다.

아리송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는 강두, 순간 ...

핸폰 : ( 지지지직 ) ... ( 지직 ) 아빠 ! 아빠야 ?

강두 : ... ! !

핸폰 : ( 지지직 ) 아빠 나 현서 !

강두 : 어 ... 으 !

핸폰 : ( 울먹 ) 아빠 ... 나 여기 ( 지직 ) 깜깜한 하수구 같은 덴데 ...

강두 : 어, 어디 ? 어디라구 ?

충격에 턱이 덜덜 떨리는 강두, 침착하려 애쓰는데 맘처럼 되지가 않고 ...

핸폰 : 몰라 아빠 ... ( 지직 ) ... 여기 괴물이 ... ( 지직 )

대개 큰 하수구 같은 ... 아주 큰 ! ( 지직 ) ... 으아앙

강두 : 혁, 현서야. 울지말구!

핸폰 : 아빠 ! 핸드폰이 밧데리가 ...

순식간에 퍽 - 끊어져 버리는 통화.

걸려온 번호를 확인하려고 허둥대던 강우, 골뱅이 깡통에 핸드폰을 풍덩 - 빠트린다.

화급히 캔 속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지만, 푹 젖어 전원이 꺼지고 고장나버린 단말기.

아무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 - 하게 서있는 강두, 완전히 얼이 빠진 표정.

병실은 쥐죽은 듯 조용한데 ... 강두 혼자 몸을 덜덜 떨면서 ...

강두 : 아, 아부지 ! ... 아빠 !

**# 27 방역트럭 내부 / 노량대교 아래 자전거 도로. 새벽**

마른남 : 너두 봤냐 ?

염색남 : 뭘 ?

흰 연기를 뭉게뭉게 내뿜으며 달려가는 방역트럭 속의 두 남자, 갑자기 창 밖을 보며

마른남 : 길에 돈 ! 지폐 !

대뜸 차를 끽 - 세우는 마른남, 차에서 내려 허리를 숙이고 돈을 찾는다.

밀려오는 흰 연기가 금세 마른남과 방역차 주위를 휘감아, 사방이 뿌옇게 변한다.

마른남 : 너두 좀 찾아봐 임마, 반 너 줄게 !

염색남 : 야 야, 빨리 들어와 ... 바로 옆이 강물이다.

마른남, 덜컥 겁이 나는지 한강물 쪽을 둘러본다.

주위를 둘러보면, 뿌연 소독약 안개 속에 뭔가 있는 듯 ... 섬칫한 느낌인데,

마른남 : ( 지폐를 발견 ) 오 예 !

바닥에서 만 원짜리를 줍는 마른남, 허리를 펴는 순간 - ( 카메라 틸 업되면 )

머리 위, 노량대교 아랫면에 거꾸로 붙어있는 괴물체 !

대교 아래 철골부분을 휘감은 꼬리 끝을 중심으로 , 시계추처럼 휘 - 익 회전,

마치 골프채가 스윙하여 골프공을 날려버리듯 ... 마른남의 몸을 쿵 - 날려버린다.

저 멀리 튕겨나가 나뒹구는 마른남,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회전한 탄력 그대로, 반대 쪽으로 흭 - 스윙하는 괴물, 방역차 위로 쿵 - 떨어져 내린다.

염색남 : 으아악 -

**# 28 노량대교 아래, 한강변**

노량대교 아래의 갯벌 같은 구역 ... 발자국 남기며 강물로 스르르 들어가는 괴물의 모습.

꺼리에 감긴 염색남, 입 밖으로 팔만 살짝 삐져나온 마른남, 둘 다 아무런 미동이 없다.

**# 29 어딘가**

한강과 연졀되는 거대한 하수구의 입구, 큰 수직 기둥들 사이로 한강이 보이는 곳.

마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 시커먼 물 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괴생물체.

한강을 등지고 하수도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들어간다.

**# 30 하수구 깊은 곳**

가끔씩 천정에 뚫려있는 조그만 빗물 구멍에서 지상의 빛이 내려올 뿐 ...

들어가면 갈 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대한 하구 동굴,

커다란 수직기둥들 너머로 여유로이 걸어가는 괴물체의 모습이 보인다.

**# 31 괴물 은신처**

수직으로 아주 깊숙한 직사각형의 공간, 지하철 환풍구처럼 길쭉하고 폭이 좁아

괴물은 자기 몸통을 ‘ 낑구다시피 ’ 하면서, 비집고 내려간다.

어둡고 음습한 바닥면 ( 씬 14의 ) 뚱뚱남과, 실종 됐다던 두 명의 사체도 보인다.

꼬리 쪽의 염색남을 시체들 위에 내려놓고, 입 속의 마른남 또한 고스란히 뱉어내는 괴물 ...

마치 음식창고에 먹거리를 저장하듯 차곡차곡 ( =시체 ) 들을 쌓아놓는다.

기분이 좋은지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는 위로 올라가버리는 괴물.

괴물이 사라진 은신처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데 ...

시체들 가장 위에 놓여진 마른남, ‘ 쿨럭 ’ 기침을 하며 몸을 꿈틀거린다 !

순간, 구석 쪽 벽면의 구멍 속에서 후다닥 튀어나오는 검은 형체 ... 교복차림의 박현서다 !

마른남의 팔을 잡고 구멍 쪽으로 끌고가는 현서.

누운 자세로 사람 두 어명이 들어갈 만한 구멍 내부, 안쪽이 막혀있다.

아직 살아있는 마른남을 똑바로 눕힌 후, 미친 듯이 심장 근처를 내려치는 현서

현서 : ( 울먹 ) 제발 ! ... 제발 !

가슴 마사지와 뺨 때리기를 반복하자, 마른남 잠시 캑 - 캑 - 고통스런 기침을 토하더니,

갑자기 용을 쓰듯, 경련을 부르르 - 일으키고는 그대로 숨이 넘어가버린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른남을 보고 절망에 휩싸이는 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 시간경과 ) 독한 표정이 되어 마른남의 몸을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 현서.

현서 : ( 중얼 ) 핸드폰 ... 잘 터지는 핸드폰 ...

마른남의 뒷주머니에서 뭔가 찾아 꺼내는 현서 ...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다.

허탈한 표정이 되는 현서,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닥에 던져버린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현서의 불안한 눈망울 위로 ...

( 순경 ) : 따님 박현서, 당산여중 일학년 ... 사망자 맞잖아요 ?

**# 32 격리수용 병실**

강두 : 아니 그러니까 ... 사망잔데 사망을 안했다고 !

순경 : 이봐요 ( 신경질 ) 지금 얘기가 자꾸 뱅뱅 돌잖아, 이 - 빠이 반복 데쓰요 !

강두 :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

순경 : ( 말 끊으며 ) 죽는걸 두 눈으로 봤다 ! 근데 새벽에 전화왔다 ! 뭡니까 이게 ?

세균차단용 비닐커튼 안 쪽의 강두,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표정.

커튼 밖에서는 정복 순경과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이 강두의 얘기를 듣고 있다.

강두 : 자 ! 잘봐 ! ( 길게 심호흡 하고 ) ... 이 핸드폰 ! 이게 박현서야 !

나는 괴물 ! ... 자, 이렇게 ...

핸드폰을 자기 입에 쑤 - 욱 집어넣는 강두, 황당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강두 : ( 입 속에 핸드폰을 문 채 ) 완전히 먹어찌 ? 그래똬가 ...

강두, 핸드폰을 휴지통에 툭 - 뱉어내며,

강두 : 일이 이렇게 된거라니까 ! ... 휴지통이 하수구 !

강두가 열연까지 곁들여 필사적으로 설명하자, 보고있던 순경은 눈빛이 진진해지면서 ...

순경 : ( 나지막히 ) 정신과 치료 받던 분입니까 ?

의사 : 그건 아닌데, 정신적 충격 땜에 일시적으루 분열증세가 생기는게 아닌가 ...

짜증스러운 표정의 순경,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병실을 휙 나가려는데 ...

남일 : 이보쇼 ! 통화내역조회, 발신자 위치추적 같은 거 다 해봐야 되는거 아냐 ?

순경 : 저기요 ... ( 한숨 ) 그런거 아무나 애브리데이 해주는게 아니에요 ...

결국은 외면하고 나가버리는 순경, 무전기가 울려대는 등 몹시 바쁜 눈치.

썰렁해진 의료진들도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 강두 혼자 횡설수설 울먹인다.

강두 : 우리현서가지금하수구레니까이바보똥대가리들이말귀를못알아으흐흑 ...

희봉 : ( 남일에게 ) 대학 나온 니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지 그랬 ...

남일 : 근데 전화가 오긴 온거야 진짜 ?

남주 : 잠깐 !

남주, 강두 앞의 비닐커튼을 걷어 젖히며

남주 : 어쨌든 지금 ... 현서가 살아있다 이 말 아냐 !

희봉 : 강두 너 아부지 함 봐봐

강두의 얼굴을 붙잡고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희봉 ... 얼굴이 냉정하게 가라앉는다.

희봉 : 너 이거 ... 진짜구나 ...

강두 : ... ( 울먹 ) 그러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구 있을 때냐고 ...

**# 33 병원 복도**

고개 숙인 강두 ... 조용히 땅을 보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그 뒤를 엉거주춤 따라가는 희봉, 남주, 남일 ... 힐끗힐끗 주변 눈치를 본다.

남주는 이상한 가방을 들고 있고, 희봉은 핸드폰으로 ‘ 누군가 ’ 와 통화중이다.

의아하게 바라보던 간호사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간호사 1 : ... 저기요 ... 잠깐 !

앞에서 가로막는 간호사 한 명을 강두가 ‘ 부드럽게 눕혀줌 ’ 과 동시에,

이판사판 노골적으로 발걸음 빨라지는 식구들.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

간호사 2 : 아니 이사람들이 지금 ... ( 악쓰듯 ) 남자 조무사들 어딨어 !

**# 34 비상구 엘리베이터**

형광등 깜빡거리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미친 듯이 옷갈아입는 네 식구들.

환자복을 벗으며 각자의 옷을 입느라, 좁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뒤엉킨다.

희봉 : 아니, 우리가 같이 다니는게 그렇게 눈에 띄냐 ?

옷 입느라 꿈틀거리며 서로를 뚱 - 하게 바라보는 식구들, 보기만해도 뭔가 짜증이 나는 듯 ...

희봉 : 아무튼 ! 이럴 때 일수록 뭉쳐야 혀, 무조건 같이 다니 ... ( 요란한 벨소리 )

여보시요 ? 아 형님 ! ... 아 지금 에레베타라서 ... 더 크게 ! 삐 삼에 ...

삐 삼에 ... 에프십칠 ? 오케오케 ! ( 폴더 덮으며 )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

다들 : 삐 삼에 에프 십칠 !

**# 35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즉 ‘ B 3 ' 표시 아래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복차림의 네 식구들, 거대한 지하주차장으로 정신없이 뛰쳐 나간다.

남일 : ( 두리번 ) 에프, 에프 ... 씨바 어디가 에프야 ?

달리는 시점으로 휙 휙 - 지나가는 지하주차장 기둥들.

기둥마다 커다랗게 C, D ... Q,, R ... 알파벳이 쓰여있고, 식구들은 F를 찾아 뛰는데 ...

순간 비상게단 쪽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큰 덩치의 남자 조무사들과 순경 !

희봉 : 저 쪽이여 !

F 기둥을 발견하고 방향 트는 희봉, 전력질주하는 가족들.

F - 17 쪽에서 부 - 앙 급발진 소리와 함께 미니버스 하나가 난폭하게 달려온다.

달려오는 식구들 앞에 슬라이드 도어를 활짝 연 채, 속도 줄이는 미니버스.

뛰어온 가속도 그대로 와르르 차 속으로 점프하는 희봉, 남일, 남주 ...

뒤뚱거리던 강두가 끝으로 올라타자, 부웅 - 가속하는 미니버스.

전력질주로 따라붙는 순경, 슬라이드 도어 문짝을 붙잡으며, 강두와 빤히 얼굴을 마주본다.

잠시 뚱하게 바라보던 강두, 끄 - 응 힘을 주며 슬라이드 문짝을 닫아버린다.

손가락 잘리기 직전, 차에서 떨어져나가며 바닥에 나뒹구는 순경, 발걸려 넘어지는 조무사들.

**# 36 총포사 봉고 내부**

흔들거리는 화면 가득, 멧돼지 머리가 보이고, 그 반대편에는 뿔사슴 머리.

봉고 내벽에 붙은 두 개의 동물머리 박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특이한 분위기로 개조된 봉고 내부, 유리창에는 조그맣게 ‘ 장씨 총포사 ’ 마크가 보인다.

장씨 : 근데, 현서가 진짜루 하수구에 있단 말이여 ?

강두 : 아저씨, 그게 그러니까 ... ( 한숨 ) 자, 이 핸드폰은 현서, 나는 괴물 ...

남일 : 아 좀 ! 하지마, 드러 !

강두 : ( 머쓱 ) ......

독특한 인상의 총포사 처녀가 운전을 하고있고,

마스크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총포사 장씨, 강두네 가족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장씨 : 아니 경찰이나 어디에 얘길 좀 해보지.

희봉 : 그게 ... 얘길해두 당최 접수 자체가 안되는겨. 접수가 되두 또 이게 ...

( 깊은 한숨 ) ... 아무튼 우리가 뭔 빽이 있어 뭐가 있어 ...

장씨 : 그래두 그렇지 ...

희봉 : 어쨌건, 한강변 하수구를 싸그리 직접 뒤질껴, 빠르고 아쌀하게 ...

장씨 : 그래 하여튼 뭐 ... 큰 짐승이 날뛰는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니께,

내가 일단 이 정도는 챙겨봤어 ...

좌석 밑의 스포츠 가방을 열어젖히는 장씨, 늘씬한 엽총 세 자루와 고성능 후래쉬,

밧줄과 사냥칼 등등 ... 훌륭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희봉 :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껴 ! ( 장씨의 손을 덥썩 잡는다 )

장씨 : ( 손을 슥 빼내며 ) ... 근디 지금 세균문제루다 한강변에 보초를

서질 않나 ... 한강이 뭔 디에무제뜨도 아니구 말여 ... 어떻게 뚫고 들어갈겨 ?

잠시 흐르는 침묵 ... 창 밖을 보고있던 강두가 문득 입을 열며

강두 : ... 한강이다 !

**# 37 강변 어딘가. 늦저녁**

움직이는 쌍안경 시점으로 보이는 텅 빈 한강 둔치 ...

둔치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군경들이 검문과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쌍안경이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침착한 눈빛의 세진 ( 남. 14 ) 이 보인다.

그 옆에 바싹 달라붙은 눈이 큰 꼬마 세주 ( 남, 10 ) 의 얼굴도 보인다.

***\* 이들은 씬 7 도입부에 등장했던 과자를 흠치려던 꼬마들이다.***

세진 : 안 쪽은 텅텅 볏네. 일단 들어만 가면 되겠쓰, 안전한 코스루 ...

세주 : 형. 꼭 가야 돼 ?

세진 : 니가 아직 배가 들고프구나 ...

세주 : ...

세진 :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어 ? 빨랑 따라와 임마.

빗방울이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 한강을 향해 멀어져가는 두 소년 ...

멀리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독특한 풍광이 드러난다.

**# 38 강변근처 어딘가. 밤**

비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세워져 있는 총포사 버스.

버스 내부의 시점으로, 희봉이 누군가와 ‘ 뒷거래 ’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옆 면에 < \* \* 보건소 > 플래카드가 붙은 방역차량 한 대를 놓고 뭔가 흥정하는 희봉.

나머지 사람들은 버스안 액정 TV로, ‘ 보균 가족 탈출 ’ 이란 헤드라인의 뉴스를 보고있다.

뒷자석의 강두는 어설픈 동작으로 장씨 아저씨에게 총 쏘는법을 배우고 있다.

***기자 : 탈출한 이들 보균자 가족 중, 특히 장남 박강두씨는 괴생물체와 직접 접촉한***

***경력이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보유자인 데다가 죽은 딸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마저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을 더욱 긴장***

***시키고 있습니다.***

뉴스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강두의 얼굴사진이 떡 - 하니 나온다.

남일 : 오 - 우, 방강두 ! 방송출연 !

강두 : 아, 저거 ... 주민증 사진을 ...

전철역 증명사진 기계에서 찍은 듯한 최악의 얼굴사진, 거의 강도강간범의 느낌이다.

이어지는 인터뷰 화면 테이블 아래로 어느 간호사의 다리통만 보이는 가운데 ...

***간호사 : ( 음성변조 ) 저희를 이렇게 막 ! 힘으루다 밀치면서 ( 병실을 ) 빠져나갔는데 ...***

***아무튼 그 사람들 무쓴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 그런 아주 무식한 ...***

남일 : 저런 씨 - 발것이 말하는거 하구 ... 나 쟤 누군지 알어 !

강두 : 그래. 간호사 중에 다리 굵은 애 하나 있었어.

남일 : 썅년이 ... 음성변조하면 모를 줄 알고 ...

남주 : 오빠들 ! 그만 좀 해 !

순식간에 입다무는 강두와 남일, 침묵 속에 빗소리와 뉴스 소리만 계속되는데 ...

***앵커 : ... 현재 경찰은 전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이들 가족에게 긴급***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탈출 보균가족들 중 막내가 현역 양궁선수***

***박남주로 밝혀져 새삼 화젭니다. 보도에 육성철 기잡니다.***

***기자 : 신궁에서 도망자로 ... 세균으로 얼룩진 금메달의 영광 ... 오늘자 스포츠지들은***

***이번 전국체전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남주의 사연을 일제히 1면 톱으로 다루며 ...***

남일 : 뭐야 이거 ? 나만 왜 기사가 안나와 ?

남주 : 오빤 별 특징이 없잖아.

강두 : ( 다리 떨며 ) ... 쎄구 쌘게 대졸 백수 아니냐

남일 : 조국의 민주화에 몸바쳤구만 씹탱이들이 취직도 안시켜주고말야 ...

투덜대는 남일의 얼굴을 귀여운 듯 쳐다보는 운전석의 총포사 처녀, 기묘한 표정이다.

***기자 : ... 한편 미국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보균가족 탈출사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금 기초적인 보균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

***이라고 규정하면서 몇 해전 세계를 휩쓸었던 SARS 사태 같은 ‘전세계적 바이러스 대재앙’***

***이 한국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번 사대를 조속하게***

***자체 해결하지 못 할 경우 미국과 WHO는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

기다림이 초조한지 다리를 달달 떠는 강두, 뒷거래 실갱이 중인 희봉을 애타게 바라보는데,

마침내 거개를 끝냈는지, 버스 속을 향해 손짓을 하는 희봉.

강두 : 됐다 ! ( 천정에 머리 부딪히며 ) 가자 !

비를 맞으며 보건소 방역 트럭으로 달려가는 강두, 남일, 남주 ...

남일은 힐끗 뒤를 돌아보다가, 운전석의 총포사 처녀와 엉겹결에 시선이 마주친다.

왠지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총포사 처녀, 머쓱해진 남일도 엉겹결에 손 인사를 한다.

**# 39 한강 시민공원 입구. 밤**

방역트럭 내부의 시점으로 보이는 한강 시민공원 입구의 바리케이트,

출입통제와 검문검색을 하는 군인, 경찰들 앞으로 강두네 방역 트럭이 다가간다.

남일과 남주는 좁은 뒷자석에 웅크려 모포 따위를 뒤집어 쓰고 숨어있고,

방역복과 마스크로 변장한 희봉과 강두는 잔뜩 긴장한 눈빛이다.

그러나 ... 검문 순경은 차 속을 대충 보면서 순식간에 휙 - 통과시킨다.

남일 : ( 고개 내밀며 ) 씨발 ... 뭔 검문이 이따위야 ? 이럴 꺼면 왜 해 ?

희봉 : 조용히 해 임마 !

순간, 이미 통과한 강두네 트럭을 다시 삑 - 불러세우는 순경, 머리털이 곤두서는 강두와 희봉 !

순경 : ( 강두 보며 ) 저기 보조석에 계신분 마스크 좀 내려봐요.

강두 : ...... !

순경 : ( 후레쉬로 얼굴 비추며 ) ... 박테리아 ?

강두 : ... 예 ?

순경 : 혹시, 상문고 17 기 아닌가 ?

강두 : 아 ... 아뇨 저는 대륜 ...

순경 : 아 이거 ! 죄송 ... ( 궁시렁 ) 우리반에방배동박테리아라구옛날에 ...

( 목소리 바뀌며 ) 음, 저기, 오늘도 이런 방역차 하나 습격 당한거 아시죠 ?

차에 있던 두 명, 시체두 못 찾았슴다 ( 경례하며 ) 그럼 조심들 !

희봉 : 아 ... 네

황당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활시위를 탁 - 놓듯 리드미컬한 음악 시작되며 ...

**# 40 둔치 어딘가. 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한강둔치를 장쾌하게 달려가는 강두네 방역차.

빗속에서 소독약 흰구름을 내뿜는 모습이 강물 건너편에서 롱쇼트로 보인다.

그 아래에 출렁이는 시커먼 한강 물의 음침한 이미지

**# 41 하수구 입구 / 내부.**

후래쉬와 엽총을 들고 어두운 하수구로 들어가는 강두와 희봉.

강두, 어둠 속을 향해 애절하게 ‘ 현서야 아빠 왔다 - ! ’ 를 외친다.

앞서가는 강두를 불러세우는 희봉, 쪼그려 앉아 겅두의 바지 끝을 접어준다.

물에 젖지 말라고 바지를 접어 올리는 종안에도 계속 ‘ 현서야 ’ 를 구슬프게 외치는 강두.

**# 42 다른 하수구**

애타게 현서를 부르는 남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퍼지고 ...

마스크를 쓰고도 하수구 냄새를 견디기 힘든지 남일은 계속 코를 핑 - 핑 - 거린다.

하수도 물을 첨벙첨벙 밟으며 빠르게 전진하는 남주와는 달리,

남일은 신발이 더렵혀질까 신경쓰며 물 고인 곳을 피해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 43 둔치 / 방역트럭 속.**

남일 : ( 짜증스레 ) 도대체 왜 저런데 ? 애두 아니구 ?

강두, 방역트럭이 내뿜는 흰 소독약 연기를 뒤집어쓰며 트럭을 뒤따라 달리고 있다.

희봉 : 냅둬라. 지 몸에 세균소독 한다구 저런다.

남일 : 세균은 얼어죽을 ... 다들 멀쩡한데 뭐 씨발 바이러스가 있다고 ...

희봉 : 위에서 있대면 있는가부다 해야지 어쩔것이여

**# 44 큰 하수구 속**

강두 : 아 ... 소독을 했는데도 이 ... ( 등을 긁으며 ) ... 근지럽네 계속 ...

남일 : ( 짜증 ) 그만 좀 ! ... 발 밑이나 제대루 봐.

희봉 : 그려. 현서 물건 떨어진게 없나, 발자국이 없나 ... 샅샅이들 봐.

모처럼 커다란 하수구 속을 조심조심 전진하는 네 식구들

후래쉬 불빛에 따라 암흑 속의 거대한 하수구가 부분부분 보인다.

남일 : 근데, 현서가 전화루 좀 자세하게 얘기한거 없어 ? 하수구 특징이라든가 ...

이거 뭔 힌트라도 좀 있어야지 한강에 하수구가 한 두 개도 아니고 ...

강두 : 그게 음 ... ‘ 큰 하수구다 ’ 그랬지 !

남일 : ( 함숨 ) ......

강두 : 여기 크잖아 ! 여지껏 본 데 중에 젤 커 !

희봉 : 그래. 이번엔 꼭 찾을꺼 같다.‘

남일 : 잠깐 ! 박강두 ... ( 멈춰서며 ) 나 좀 똑바루 봐 봐

강두 : ... ?

어리둥절 ...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식구들. 하수구의 정적이 싸늘하게 밀려온다.

남일의 후래쉬 불빛이 강두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

남일 : 마지막으루 딱 한번만 묻겠는데 ... 현서한테 진짜루 전화가 왔어 ?

희봉 : 또 그 소리 !

남주 : ( 버럭 ) 현서가 살아있다는게 그렇게 믿기 싫어 ?

남일 : ( 꽥 ) 낸들 현서가 안보구 싶냐 ! 그냥 확인사살 차원에서 ...

희봉 : 조용 !

모두들 움찔 - 하며 말을 멈추자 ... 서늘한 정적이 암흑 속에 밀려온다.

어둠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돌연 긴장감에 휩싸이는 가족들

강두 : ( 떨리듯 ) ... 현서니 ?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다시 한번 철퍼덕 - 물 밟는 소리 같은 것이 난다 !

소름이 쫙 돋는 가족들 ! ... 철커덕 - 엽총을 장전하는 희봉

겁에 질린 남일, 촐랑맞게 후래쉬를 앞 뒤 좌우로 휘둘러대는데,

후래쉬를 딱 붙잡아 한 곳으로 고정시키는 남주의 날렵한 동작 !

불빛에 비춰지는 물 고인 곳 ... 두 하수도가 합쳐지는 교차로 같은 곳인데,

바로 조금전 뭔가가 밟고 간 듯 찰랑거리는 파장이 물 위에 남아있다 !

수면 위의 파형이 후래쉬 불빛을 반사시켜 벽면에 오묘한 빛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살벌한 정적 ... 총을 겨눈 채 살금살금 하수구 꺽어진 모퉁이로 다가가는 식구들,

모퉁이만 돌면 다른 쪽 하수구 공간이 보일 듯 말 듯 ...

입술이 바짝 타는 희봉의 시점으로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

검게 아가리를 벌린 하수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

식구들, 잠시 긴장이 풀어지는데 ... 순간, 남주의 어개 위로 두두둑 - 떨어지는 액체방울 !

머리털 쭈삣 곤두서는 남주, 희봉과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고 ...

희봉 : 숙여 !

고개 숙이는 가족들, 동시에 천장을 향해 불을 뿜는 희봉의 엽총 !

빠방 - 하수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 !

가늘게 찢어지는 남일의 비명

긴 하수구에 울려 퍼지는 총성을 따라가면 ...

하수구 다른 쪽 소리에 놀라 몸을 화들짝 움츠리는 두 꼬마, 세진과 세주,

하수구 벽면 움푹한 곳에 몸을 촥 붙이고 숨어있다.

세진 : ( 놀란 세주의 입을 막으며 ) 쉿 !

총을 쏜 천정을 휙 - 비추는 남주의 후래쉬.

천장에는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는 커다란 물 얼룩만이 있을 뿐 ...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식구들, 털퍽 자이에 주저앉고 만다.

그런 가족들을 멀리서 빼꼼이 엿보는 세진과 세주

세진 : 뭐야 도대체 ... 저 인간들 ?

세주 : ( 자기 신발 보며 ) ... 형, 나 발 축축해

세진 : 그러게 물 밟지 말라 그랬잖아 ... 일루와

강두네 가족들 시야에서 벗어나 살금살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세진과 세주

**# 45 하수구 입구 - 둔치. 밤**

커다란 하수구 입구로 살그머니 빠져나오는 세진과 세주

비내리는 한강 둔치가 눈 앞에 펼쳐지고 ... 바로 가까운 거리에 외딴 매점 하나가 보인다.

지나가는 군용차의 불빛을 잠시 피한 후 몸을 숙여 매점 쪽으로 달려가는 두 꼬마.

**# 46 매점 내부**

커다란 스포츠 가방에 먹을 것을 신들린 듯 챙겨넣는 세진.

신이 나서 과자들만 잔뜩 쑤셔넣는 세주, 선반아래에서 천원 짜리 두 장을 발견한다.

세주 : 와 ! 돈 두 있다 !

세진 : 그건 그냥 나둬

세주 : 왜 ? 가질래 ...

세진 : 냅두라니까 ! 그거까지 손대면 절도야 절도 ... 도둑질 ! 알어 ?

세주 : 어차피 지금 훔치는 중이잖아 ?

**# 47 매점 주변 둔치. 밤**

세진 : 세주야, 이건 도둑질이 아냐. 우린 방금 매점서리를 한거야, 매점서리 ...

너, 서리가 뭔지는 알어 ? 수박서리, 참외서리 할때 ‘ 서리 ’

빵빵하게 꽉 찬 가방을 하나씩 둘러매고, 어둠 속의 둔치를 빠져나가는 세진과 세주

빠르게 빗속을 뛰다가, 한강다리 교각에 바싹 붙어 잠시 숨을 돌리는 둘.

세주 : ( 숨차 헐떡이며 ) 그게 뭔데 ? 서리 ...

세진 : 진짜 모르냐 ? 세대차이 심각하구만 ... 아무튼 !

서리는 배고픈 자들의 특권이다 이말이야 알겠어 ?

유식하게 설명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세주 쪽을 슥 돌아보는 세진.

세주는 입을 애 - 벌리고 한강다리 밑면의 ‘ 무언가 ’ 를 보고 있다.

세주 : ( 놀라운 듯 ) 우와 ...

세진이 같이 올려다 보면 ... 어두운 한강다리 아래면 철골 구조에 달라붙은 괴물체,

이단 평행봉 체조선수 같은 기묘한 동작으로 조용히 이쪽으로 오고 있다 !

세진 : ... 세주야 ... ( 세주 손을 꽉 잡는다 )

심장박동 억누르며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세진.

그나마 숨을 만한 곳은 방금 전 뛰쳐나온 매점 뿐.

세진 : 뛰어 !

세주의 손을 잡고 총알처럼 스타트하는 세진 !

가방마져 팽개친 채 매점을 향해 달리는 두 소년.

체조선수가 착지하 듯 교각에서 땅으로 쿵 - 떨어져 내리는 괴물,

두 꼬마들 향해 쿵쿵쿵 달려오기 시작하고 ...

뒤도 못돌아보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세진과 세주.

둘의 시점으로 점점 다가오는 매점 뒷 문 !

점점 거리를 좁히며 추격해오는 괴물.

돌진하는 세진이 손을 뻗어 매점 뒷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

**# 48 매점 내부**

삐걱 - 열리는 매점 뒷 문 후래쉬 불빛과 함께 빼꼼이 얼굴을 들이미는 희봉.

매점 안으로 우루루 숨어 들어오는 가족들,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 주저앉는다.

( 장면 바뀌어 ) 좁은 공간에 끼여 앉아 컵라면에 끓는 물을 붓는 가족들.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후래쉬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

( 장면 바뀌어 ) 각자의 컵라면 뚜껑을 두 손으로 지긋이 누른 채 ... 말이 없는 가족들.

고요한 정적 속에 매점 지붕을 두두두 - 때리는 빗방울 소리만아 들린다.

뚜껑을 확 젖히는 강두를 필두로 ... 다들 후룩후룩 정신없이 컵라면을 먹기 시작.

복판에 펼쳐놓은 김밥과 계란, 김치 등등에도 분주히 젓가락이 오간다.

강두가 손을 뻗어 김밥을 가져오면 어느새 강두 컵라면이 사라지고 없다.

옆을 휙 보는 강두 ... 바로 옆에 형서가 앉아 강두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다.

뚱 - 하게 바라보던 강두, 기다란 통김밥을 현서에게 쑥 내민다.

현서, 김밥 끝을 확 물어 당기면 길다란 단무지 라인이 쭈 - 욱 빠져나온다.

희봉은 삶은 계란 껍질을 까서 현서에게 내밀고 남일은 만두를, 남주는 생수병을 ...

주는대로 우적우적 음식들을 받아 먹는 현서, 강두의 품으로 슬그머니 파고 든다.

**# 49 괴물 은신처**

길 위로 뚫린 듯한 하수구 구멍에서 빗물이 뚝 뚝 세어 떨어지고 ...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는 현서, 위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어둠 속에 누워있다.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누워있으면 물방울이 뚜둑 - 현서 입 속으로 떨어진다.

찝찝한 얼굴로 물 삼키는 현서, 굶주림과 피로가 몰려와 눈이 저절로 감긴다.

현서 머리맡에는 뚱뚱남, 순경, 염색남 등등의 시체들이 쌓여있고 쥐들이 그 위를 오간다.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지던 물방울이 갑자기 뚝 - 멈추자 이상하여 눈을 뜨는 현서

저 위쪽 은신처 입구에서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괴물의 얼굴이 보인다 !

소름 돋으며 온 몸 얼어붙는 현서 ... 시체인 척 숨을 멈춘다.

숨소리를 죽이며 가늘게 실눈을 뜬 현서의 시점화면 ...

현서를 내려다보던 괴물이 쭈 - 욱 미끄러지듯 현서 바로 코 앞까지 내려온다 !

괴물의 숨결이 확 - 느껴질만큼 바싹 다가오는 괴물의 커다란 아가리

아랫 입술을 꽉 물어 공포를 짓누르는 현서,

괴물이 입을 쩌 - 억 벌리자 세주의 싸늘한 몸뚱이가 강물과 함께 쏟아져 내린다.

늘 하던대로 현서의 몸뚱이 위에 세주를 포개듯 내려놓는 괴물,

꼬리에 휘감은 세진 또한 그 위로 내려놓는다.

기분이 좋은 듯 세진과 세주를 슥슥 혀로 햝던 괴물 ...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린다.

실눈을 뜨며 위쪽을 살피는 현서, 괴물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몸 위에 포개어진 세진, 세주를 살며시 옆으로 밀어낸다.

몸을 일으켜 세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현서, 세진의 심장위에 손을 대보는데 ...

갑자기 벌떡 세주가 눈을 뜨며 일어난다 !

현서 : 꺄악 !

세주 : ( 멍하게 현서를 보다가 ) ... 어 ... ( 세진을 보고 ) 형 !

세진의 몸을 붙잡고 마구 흔드는 세주, 그러나 이미 싸늘한 세진의 시체

세주 : 뭐야 ... ( 울듯 ) 형 ! 일어나 !

순간 황급히 세주의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쓰러지는 현서.

위 쪽에서 다시 고개를 휙 - 내미는 괴물, 소리가 나는 아래쪽을 갸우뚱 내려다본다.

싸늘한 정적 ... 죽은 척 엎어져있는 현서.

괴물이 다시 사라져버리자 그제서야 입막은 손을 풀어주며 ...

현서 : 울지마 ... 울지마 ... ( 세주를 다독인다 )

세주 : ... ( 울먹 ) ...

현서 : 너 혹시 ... 핸드폰 있니 ?

**# 50 매점 내부. 새벽**

오른손에 핸드폰을 쥔 채 괴상한 포즈로 앉은 채 잠들어 있는 강두.

희봉은 먹은 흔적들을 서둘러 치우고 있고 ... 남일은 잠든 강두를 황당한 듯 바라보며,

남일 : ( 한숨 ) ... 진짜 신비롭지 않냐 ? 이 상황에서 ...

남주 : 빨리 깨워. 시간 없어.

희봉 : 잠깐만 냅둬라. 앤 짬짬이 눈을 붙여줘야 돼 ...

남일 : 그럼 그냥 여기 놔두구 가자. 어차피 도움두 안되는데.

남일과 남주를 잠시 바라보던 희봉, 문득 담배를 꺼내물며,

희봉 : ( 한숨 ) 니들 ... 잠깐만 앉어봐라.

힐끔 희봉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는 남일과 남주

희봉 : 니들 보기엔 ... 강두가 그렇게두 한심하냐 ?

희봉을 빤히 바라보는 두 사람, 잠시 침묵하다가 ...

둘다 : 네

단호한 대답에 머쓱해지는 희봉. 그러나 말을 계속 이으며 ...

희봉 : 으유 ... 느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 나는 이런 쫍은데서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삐대구 지내니까 잘 알지 ...

남일 : ... ?

희봉 : 가끔씩 강두 이 놈이 눈빛이 확 - 변할 때가 있거던 ? 뭐시랄까 ...

눈빛이 번쩍 - 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버리는 ...

남일과 남주의 썰렁한 반응에 희봉은 슬며시 말꼬리를 돌리며 ...

희봉 : ... 거시기 ... 아무튼 말 나온 김에 ! 내 평생 첨이자 마지막으루다가

니네들 붙들구 딱 한마디만 할란다.

희봉이 후래쉬 불빛을 꺼버리자 어둑해지는 매점 내부.

매점 창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어슴프레 희봉의 얼굴을 비춘다.

희봉 : 우리가 말이다 ... 이렇게 오늘날 졸지에 세균 훼 - 미리가 되가지구선

시궁창을 빡빡기면서 하수도를 뒤지구 다닐지 ... 불과 며칠전만 해도 상상두

못했었던 ... 응 ? 실로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갓이다 ... 안그냐 ?

뭔가 어색한 희봉, 한국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 애매하게 옆 쪽으로 시선을 두면서 ...

희봉 : 하기야 ... 성수대교 무너질 때 떨어져 죽은 애들이나, 길가다 장갑차에 깔려

죽은 애들이나, 지하철에 불나서 순식간에 타죽은 애들이나 ... 황당하긴

다들 만찬가지여. 그러케 황당한데 그게 또 실제루다 일어나니께, 그것이 또

더더욱 황당스러운 것이여 ...

남일 : ... ?

희봉 : 하여튼 ! 이런 황당한 일들은 그저 한가지 결론밖에 없는겨 !

뒈진 애들만 불쌍하다 ! 그리구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런진 애미애비들 !

남주 : ......

희봉 : 게다가 만일 ... 진짜루 만에 하나 ... 째진 주댕이루 할 말은 아니다만 ...

만에 하나 이번 일루다 현서를 잃게 되는 경우에 ... 니네들 강두한테

최대한으루다 잘해줘야지 절대 애한테 뭐라뭐라 그러면 안된다, 알겄냐 ?

남일 : ...

희봉 : 저번처럼 ... 너 왜 다른 집 애새끼 손 붙잡고 뛰었냐 이 병신아 ... 이딴소리

절대루 하지말라 이거여 ! 알겄어 모르겄어 ? 그런 것이 바로 이 놈 가슴에

두 번 못질하는 ...

다짐받듯 강조를 하다가 문득 말문이 막히는 희봉 ...

남일과 남주가 어느새 눈거풀이 반쯤 내려온 채 스르르 졸고 있기 때문이다.

애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희봉, 촉촉한 눈빛을 한 채 ...

희봉 : ... 나야 앞으로 살아봤자 ... ( 증얼 ) 니들이 평생 애를 짊어져야 되는겨 ...

피로에 가득한 한 숨을 내뱉는 희봉, 슬며시 강두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뒷 편에 앉아 있는 강두, 오래 전부터 깨어왔던 것처럼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앉아 있다 !

강두는 멍 - 한 눈빛으로 매점 창 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

희봉 : 왜 그려 ?

강두 : ... 보는데 ...

희봉 : ... ?

강두 : 우릴 봐 ... 아까부터 ...

매점 천장을 때리며 더욱 고조되는 빗소리 ... 강두가 보는 쪽을 희봉도 보면 ...

살짝 열린 매점 창문 틈사이로 여명이 밝아 오는 둔치 30m 전방,

괴물이 이상한 자세로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먹고 있다 !

고개를 쳐든 채 빤히 뜨고 있는 기분나쁜 눈동자 ... 마치 이쪽을 응시하는 것 같다.

희봉 : ... !

세워놓았던 엽총을 움켜지는 희봉, 창 틈으로 총구를 살며시 내밀며 호흡을 멈춘다.

왕년에 수렵 취미가 있었는지 조준하는 자세가 그럴 듯 하다.

더더욱 굵어지는 빗줄기 ... 쏴아아 - 소리를 내며 억수같이 퍼붓는다.

창 밖으로 내민 총신 위로 투두두두 - 튀어오르는 빗방울 ...

희봉의 시점으로 길게 뻗은 엽총 총구가 저 멀리 괴물의 머리를 겨냥한다.

숨죽이며 철컥 - 장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매점 쪽으로 돌진을 시작하는 괴물 !

강두 : ( 버럭 ) 쏴 !

찢어지는 총성 ! 괴물이 지르는 괴성 ! 졸다 깬 남일의 비명 !

돌진해온 괴물이 매점을 들이받는 순간 와장창 흔들리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매점 내부.

진열대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며 가족들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는데 ...

괴물은 다시 한 번 매점을 들이받으며 힘으로 밀어 붙인다.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매점 ... 둔치 바닥에 쓰러져 버린다.

지옥이 아수라장 ... 뒤로 난 출입문은 지면과 맞닿아 열리질 않고,

하늘을 향하게 된 매점 유리창으로는 괴물이 주둥이를 바짝 들이민다.

순간 괴물이 벌린 아가리에 총을 대고 그대로 쏴버리는 희봉 !

꽤애엑 - 피를 토하며 몸을 뒤트는 괴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다.

잠깐의 정적 ... 사방에 빗소리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

**# 51 매점 밖. 둔치**

희봉, 하늘로 향한 매점유리창을 열고 고개를 빼꼼이 내민다.

빗줄기 속의 둔치를 둘러보면 둔치 안쪽으로 이십여미터 전방 ...

총 맞은 입 속에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차고 있는 괴물 !

희봉, 매점 창 위로 올라오며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에 움츠리며 빠르게 뒷걸음질 치는 괴물.

따라나온 강두 또한 총을 쏴대자 괴물은 후다닥 교각들 쪽으로 몸을 피한다.

처음보는 괴물의 모습에 입이 쩍 벌어진 남일, 겁에 질린 얼굴이고 ...

강두와 희봉, 공격적인 기세로 엽총을 쏘며 괴물을 둔치 안쪽으로 몰아붙인다.

가장 늦게 매점을 빠져나오는 남주, 늘 들고다니던 그 ‘ 가방 ’ 를 가지고 나온다.

가방을 열면, 가지런히 정리된 양궁 활과 악세서리들 ...

조금도 동요 없이 빗속에서 활 부속을 조립하는 남주,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엽기적이라 할 만큼 차분하다.

희봉과 강두의 총알 세례를 피하며 교각아래 코너쪽으로 요리조리 후퇴하던 괴물,

갑자기 교각 기둥을 빠르게 타고 오르기 시작한다.

교각 쪽으로 돌진하는 강두, 빗줄기 속에 고개를 쳐들고 괴물을 향해 총을 쏘는데,

순식간에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간 괴물 ... 다리 위를 그대로 가로지르는 듯,

자동차 크락션 소리와 급정거 소리, 브레이크 파열음 등이 위에서 터져나온다.

달려가던 남자들, 교각 위 쪽을 올려다보는데 ...

어느새 다리 반대쪽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괴물,

다리 아랫면 철골을 절묘하게 휘감으며 특유의 동작으로 매달리더니,

교각들 사이사이로 휘청휘청 매달리며 멀어져간다.

결정타 한방을 날리기 위해 희봉, 강두, 남일의 총구가 불을 뿜지만 ...

괴물은 교각들 틈새로 숨었다 드러났다를 반복하며 재빠르게 움직인다.

총성을 들었는지 둔치 저 멀리서 군인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

어설프게 방아쇠 당기던 남일, 총알이 떨어져 빈 총 소리가 나고,

남일 : 씨바 ... 총알 ... !

덩달아 희봉의 총구도 뚝 멈춰지고 남자들 당황스런 기색인데 ...

총소리가 사라지자 교각 저 편에 매달린 괴물도 움직임을 멈추더니,

빼꼼이 고개를 내밀고 강두 쪽을 바라본다.

마치 총알이 떨어진 것을 눈치라도 챈 듯 이 쪽을 빤히 쳐다보는 기분나쁜 얼굴

희봉 : 젠장 ... ( 주머니를 뒤지며 ) 총알이 차에 있는 ...

순간 한강물로 풍덩 - 수직 다이빙하는 괴물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오기 시작한다 !

섬칫 -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강두와 희봉, 남일

희봉 : 트럭으루 뛰어 !

강두 : ( 총 보며 ) 내껀 ... 한 발 남았는데 ... !

희봉 : 니 총 나주고 ! ( 강두 총 뺏아들며 ) 어여들 뛰어 !

멀리 주차해 놓은 방역트럭을 향해 후다닥 후퇴하는 강두와 남일.

한발 남은 강두의 총을 움켜진 희봉, 뒷걸음질 치며 헤엄쳐오는 괴물을 겨눈다.

달리며 뒤돌아보는 강두의 시점으로 ... 점점 멀어지는 희봉의 뒷모습.

강두 : 아부지 ! 빨리 !

희봉 : 니나 빨 리가 ! ( 철컥 - 장전한다 ) 한 방으루 끝내버릴겨 !

강두 : 일단 일루와요 !

빠르게 헤엄쳐오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괴물을 향해 바짝 총을 겨누는 희봉

근거리에서 일발필살을 노리는 듯 두 눈에 잔뜩 힘 모아진다.

순간 머리 위로 뭔가 “ 피쉭 - ” 허공을 가르는 소리.

화살 하나가 괴물 근처 강물에 퍽 - 꽂힌다.

희봉이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흰 모자를 쓴 남주가 화살을 활에 끼우고 있다.

희봉 : 남주 너 ... ( 버럭 ) 차에 들어가 !

엄격한 양궁자세로 정신을 집중하는 남주, 희봉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 듯,

피슉 - 도 한 발을 날리는 남주, 화살은 괴물 등 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

남주 : 괜찮다 ... ( 고개 숙이고 ) ... 움직이는 걸 처음 쏘니까 ...

( 중얼 ) ... 움직이는게 처음이라 ...

그 와중에 고개를 숙인 채 모자를 만지며 중얼중얼 ‘ 상상훈련 ’ 에 빠져드는 남주.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는 희봉, 얼른 피하라고 소리치며 남주쪽으로 달려간다.

트럭 쪽의 강두와 남일은 총알 장전을 잘 못해 버벅거리고 있는데,

괴물, 순식간에 둔치 위로 상륙한다 !

순간, 감았던 눈을 번쩍 뜨는 남주 - 괴물을 향해 번개같은 한 발 !

날렵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간 화살, 그러나 괴물의 등짝을 스치며 아깝게 튕겨나가고 ...

괴물은 거침없이 전진 희봉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

희봉 : ( 중얼 ) 일루 와 봐 ... 더 와 ...

위태롭게 최전방에 선 희봉 ... 돌진해오는 괴물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적 한방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

철컥 - 빈 총소리만 울려나오고 ... 총알이 없다 !

희봉 : 헉 ... !

강두 : ... !

트럭 앞에서 총알 넣으며 숫자 세던 강두, 새하얗게 질린 얼굴 ...

돌진해온 거친 속도로 희봉을 덮쳐버리는 괴물 !

강두 : 안돼 - !

피흘리며 바닥에 널부러진 희봉을 꼬리 끝으로 슥 - 휘감는 괴물

소리치며 달려오는 강두, 재장전된 총을 겨누지만 희봉 때문에 쏘지를 못하고 ...

괴물, 마치 본보기라도 보여주듯 ‘ 과시적인 ’ 동작으로,

하늘 높이 큰 원을 그리며 희봉을 휘둘러 둔치 시멘트 바닥에 참혹하게 패대기 친다 !

순간 눈이 확 - 뒤집히는 강두, 미친 듯 돌진하여 엽총을 갈겨대지만,

괴물은 순식간에 강물 쪽으로 달아나버리고 ...

피를 쏟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희봉을 끌어안는 강두.

강두 : 으으 ... 아부지 !

희봉 : ... 아 ... 아 ...

가망이 없어 보이는 희봉, 고통스레 숨을 헐떡이는데 ...

강두, 희봉을 부둥켜 안으며 뒤를 돌아보면 하얗게 질려 달려오는 남주와 남일.

둘 너머로 ... 세균전 특수부대 군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완전히 패닉상태가 되어 어쩔 줄 모르는 강두의 얼굴 ...

그 얼굴 옆으로 피묻은 희봉의 손이 슥 올라온다.

희봉, 강두 방역복의 후드를 붙잡아 비를 맞는 강두의 머리에 억지로 씌운다.

강두의 머리와 얼굴에 퍼지는 희봉의 붉은 피.

희봉, 뭔가 말하려 하지만 좀처럼 목이 트이지 않고 울컥거리다가 ...

갑자기 피를 한 웅큼 퍽 쏟아내며 추 - 욱 늘어져버린다 !

남주 : 아 - 아악 !

찢어질 듯 비명지르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남주 ...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싸늘한 죽음의 냉기로 뒤덮인 희봉의 얼굴에 잠시 손을 대보는 남일,

폭발직전의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남일 : ... 이 ... 이런 씨바 ... 뭐 이런 개깉은 ...

이글이글 불타는 두 눈으로 유유히 헤엄쳐 멀어져가는 괴물을 바라보는 남일,

총이 있는 트럭 쪽으로 가려하지만 그 너머로 특수부대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방향을 바꾼 남일, 미친 듯이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한다.

얼굴에 희봉의 피를 묻힌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강두, 희봉의 시체를 끌어안으며

강두 : 으흐 ... ( 울듯 ) ... 어떡해 현서 !

남주 : .....

점점 다가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쩔줄 몰라 불안하게 왔다갔다 하는 강두,

강두 : ( 남주에게 ) 빨리 도망가 !

남주 : ...

강두 : 우리 잡히면 안돼 ! 현서가 기다리는 ... 빨리 가 !!

미친 듯 소리치는 강두의 고함에 넋나간 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남주,

정신없이 달리며 남일이 사라져간 하수구 쪽을 향한다.

축 늘어진 희봉의 몸을 질질 끌어 조그만 벤치 아래로 간신히 밀어 넣는 강두.

벤치 아래로 쑥 들어간 희봉의 얼굴만이 그나마 빗줄기를 피한다.

그 상태로 희봉을 놔두고 군인들 반대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는 강두

힐끗 뒤를 돌아보면 ...

벤치 아래에 머리를 넣은 채 차가운 빗줄기를 온 몸에 맞으며 땅바닥에 누워있는 희봉 ...

달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강두, 돌아볼 때 마다 점점 발걸음이 느려진다.

빗 속에 희봉을 놔두고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강두,

어정쩡하게 쭈삣거리는 사이 ...

이중 방역복과 둔중한 장비들로 잔뜩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 희봉 주변에 몰려들며

군인 1 : ( 무전기에 ) 방역요원 부상, 괴생물체 기습으로 방역요원 부상 ...

군인 2 : ( 강두를 향해 ) 이봐요 ! 거기 !

애매하게 서있는 강두에게 소리치던 군인, 문득 강두의 얼굴을 보고

군인 2 : ( 화들짝 ) 으아 ! ... 그 !

강두 향해 호들갑스럽게 총까지 겨누는 군인 2

놀라며 번쩍 두 손을 치켜드는 강두, 겁에 질린 얼굴로 벤치 쪽의 희봉을 바라본다.

군인 1 : ( 무전기에 ) ... 보 ... 보균가족 ! 도주 보균가족 발견 !

군인 2 : 빨리 응급차 불러 !

군인 1 : 네 !

달려온 군인들에게 포위되는 강두, 병사들 틈새로 희봉의 얼굴을 보려고 애쓰지만 ...

차가운 빗 속에 누워 있는 희봉의 얼굴은 벤치 아래 그늘 속에 파묻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득 바보처럼 울음 터뜨리는 강두, 두 손을 머리에 올린 채 눈물을 질질 쏟아낸다.

**# 52 괴물 은신처**

고요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는 은신처.

그러나 괴물이 쌓아놓은 시체더미들 옆에서 뭔가 꼼지락 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

현서와 세주가 시체들의 점버와 바지 등등을 낑낑거리며 벗겨내고 있다.

이를 악물고 구역질을 참으며 시체의 상의를 벗겨내는 현서.

죽은 순경의 바지를 벗기다가 구토를 하는 세주 ... 현서가 등을 토닥여준다.

( 장면 바꾸면 ) 시체들과 동떨어진 반대편 구석 좀 밝아진 표정의 현서와 세주가

시체에서 벗겨낸 바지와 점버 등등을 꽁꽁 묶어서 길게 길게 연결하고 있다.

현서 : 누드 김밥 !

세주 : 천하장사 소세지 !

현서 : 삶은 계란 ! 떡복이에 들어있는거 ...

세주 : 가게집 짜장면 ! 배달시킨거 말고 ...

둘다 : ( 일제히 ) 크으 ...

두 사람, 짜장면의 그 맛을 입안 가득 상상하 듯 ...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세주 : 우리 나가면 짱께집부터 가자.

현서 : 오케 ... 아니, 난 나가자마자 황도부터 먹을꺼야.

세주 : 황도가 뭐야 ? 쭝국요리 ?

현서 : 진짜 황도를 모른단 말야 ?

세주 : ... ( 끄덕 )

현서 : 야 ... 세대차이 엄청나구만 ...

( 장면 바꾸면 ) 순경 시체에서 빼낸 **ㅏ**자 형태의 묵직한 경찰곤봉을 맨 끄트머리 옷자락에

꽉꽉 동여메는 현서, 시선은 벌써 저 위 출구쪽을 향하고 있다.

곤봉을 빙빙 휘둘려 높이 던져보는 현서.

그러나 옷들이 치렁치렁 매달려있어 생각만큼 잘 던져지지 않는다.

연결된 옷들과 경찰곤봉을 한데 뭉쳐서 있는 힘껏 위로 던지는 현서.

휘이익 - 날아간 경찰봉이 은신처 입구를 일부 덮고 있는 철망판 위로 떨어진다.

**ㅏ**자 모양 경찰봉의 손잡이 부분이 철망틈에 끼이며 자연스럽게 고정되는 생명줄 !

세주 : 와 !

그러나 ... 줄의 길이가 넉넉지 않아 축 - 늘어진 생명줄의 끝부분이 꽤 높은 위치다.

현서가 점프해 손을 뻗쳐도 닿지 않자 세주를 무등 태우려 하는데 ...

현서 : 잠깐 ...

세주 : 왜 ?

현서 : ... 온다 !

뭔가가 다가오는 소리 ... 괴물이 오는 듯 후다다닥 구석 쪽 구멍으로 숨는 두 사람.

세주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는 침착하게 구멍 밖을 내다보는 현서 ...

모습을 드러내는 괴물, 고개를 쑥 내밀어 자기가 쌓아놓은 시체들을 내려다본다.

세주 : ... 왔어 ?

현서 : ( 끄덕 ) 쫄거 없어

고개를 더 내미는 괴물, 자기먹이 ( =시체 ) 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린다.

입 속에서 사람을 뱉어낼 때의 그 포즈다.

현서 : ... 오케. 또 한 명 나온다 ...

세주 : ( 고개 내밀며 ) 진짜 ?

현서 : 이번엔 반드시 ... 잘 터지는 최신 핸드폰 오빠가 뚝 - 떨어진다 ...

세주 : ...

현서 : ( 중얼 ) 얼굴두 잘생기구 머리는 조막만한 오빠가 ...

무슨 주문을 외우듯 중얼중얼거리는 현서.

마침내 아가리를 크게 쫘악 - 벌리는 괴물.

현서 : 자 ... 나온다 ... 잘 터지는 오빠 ...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현서, 그러나 한 껏 벌린 괴물의 입 속은 텅 비어있다.

현서 : ... ? !

순간 ‘ 꺼 - 억 ’ 괴상한 소리를 내는 괴물, 뭔가 조그만 하얀 것을 토해낸다 !

고요히 허공을 가르며 길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 사람의 흰 뼈 !

바닥에 탕 - 튕겼다가 데구르르 - 구르는 사람의 뼈.

괴물은 입을 더 쫘악 벌리며 사람이 토할 때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더니,

우우욱 - 와르르르 ... 뼈와 해골들을 아래로 토해낸다 !

완전히 소화되어 뼈만 남은 희생자 유골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현서와 세주, 섬칫한 광경에 질려버린다.

뼈를 다 뱉어낸 후 뭔가 목에 걸린 듯이 캐액 - 캑 거리는 괴물,

잠시 용을 쓰다가 캑 - 뭔가를 뱉어내는데 떨어져 구르는 그것은 HITE 캔맥주 !

어리둥절 ... 황당한 듯 캔맥주를 바라보는 현서.

뱃 속을 시원하게 다 비운 듯 시원하게 트림을 하는 괴물,

바닥으로 휙 내려오더니 미친 듯이 시체들을 뜯어먹기 시작한다 !

야만적인 “포식” 을 시작하며 맨 왼쪽 세진의 시체부터 물어 뜯는 괴물 !

세주 : 안 돼 !

소리치는 세주의 입을 화들짝 틀어막는 현서

소리를 듣고 휙 - 세주 쪽을 돌아보는 괴물, 성큼성큼 구멍 쪽으로 달려온다 !

현서와 세주, 비명을 깍 - 지르며 구멍 안쪽으로 최대한 오그라붙는데 ...

괴물, 구멍 입구에서 아가리를 들이밀며 괴성을 내뿜는다.

하얗게 질려 서로 끌어안는 현서와 세주

구멍이 작아 머리가 들어가지 않자 몸을 돌려 꼬리를 구멍 속으로 밀어넣는 괴물

기겁한 아이들, 큰 뱀처럼 휘감기며 들어오는 괴물의 꼬리를 미친 듯이 발로 찬다.

꼬리로 마구 쑤셔대는 괴물, 세주의 다리를 척 - 휘감아 밖으로 당긴다.

주욱 끌려나가며 비명지르는 세주,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현서

장난치듯 당겼다 말았다 하다가 ... 슬며시 세주를 놓아주는 괴물

성가신 듯 꼬리를 거두고는 다시 시체들 쪽으로가 포식을 시작한다.

피묻은 이빨로 세진의 시체부터 다시 씹어 삼키는 괴물

현서, 울부짖는 세주의 눈을 가린다.

지하 가득히 울려퍼지는 괴물의 사람 먹는 소리 ...

이제 현서 또한 완전히 공포에 짓눌려 온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현서 : ( 떨리듯 ) ... 아빠 ...

**# 53 광화문 부근. 밤**

박강두의 거대한 얼굴 ... 시청부근 빌딩 위 커다란 전광판에 강두의 얼굴이 보인다.

하얀 방역마스크를 한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일렬횡대로 늘어선 사람들 ...

다들 고개를 들어 전광판 뉴스 화면의 강두 얼굴을 보고 있다.

얼굴 아래로는 *‘ 체포된 박강두, 죽은 딸 환생 주장하며 난동 ’* 식의 뉴스자막이 깔린다.

순간 시내버스 하나가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며 길가에 고인 빗물을 쫙 - 튕긴다.

마치 세균이라도 몸에 튀는 듯 화들짝 - 사방으로 피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한 채 히스테리컬하게 버스 쪽으로 욕지거리를 쏟아낸다.

**# 54 시내버스 내부. 밤**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시내버스 안 승객들도 하얀색 마스크를 하고 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뒤쪽 좌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한 청년 ... 남일이다.

버스속 남일의 시점 화면으로 각기 다른 빌딩의 전광판화면이 계속 이어진다.

버스에서 틀어놓은 라디오 뉴스 사운드와 빌딩 위 전광판 뉴스 화면들이 기묘하게 겹쳐지며,

***리포터 : (전화연결) ... 현재 그 탈출한 보균자 가족 중 일부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구요.***

***바이러스 숙주인 괴생물체 또한 생포나 사살에 실패하고 있는 깝깝한 상황 아닙니까 ?***

***결국 이런 이유로 미국과 WHO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괴생물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라고 결론을 짓고 사태에 적극 개입키로 결정을 내렸다 ... 라고 봐야겠죠***

***앵커 : 네 ... 그 맥락에서 전격적으로 이 ... ( 부시럭 ) ‘에이전트 엘로우’ ... 맞죠 ?***

***이 ‘에이전트 엘로우’ 라는 첨단 장비를 한강에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리포터 : 그렇습니다. 이 ‘에이전트 엘로우’ 라는 것은 ... 원래 미국이 90년대 후반부터***

***개발해왔던 것인데요. 세균테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첨단 방역장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오염구역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특수 약품이***

***살포되면서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세균학적 위험요소가 완전 궤멸되는 ...***

뉴스 소리 계속되는 가운데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휙휙 지나간다.

어느 건물 2층 휘티니스 센터, 늘씬한 남녀들이 다들 마스크를 한 채,

창가의 러닝머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렬 횡대로 뛰는 모습이 보인다.

**# 55 골목길. 밤**

행인들의 눈길을 피하며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어가는 남일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짙은 기침을 쿨럭인다.

골목 벽에 붙어 있는 비에 젖은 전단지들 ... 그 중 수배 전단 하나를 발견하는 남일.

**<긴급수배 : 도주 보균자 가족> 전염병 예방법 위반 / 공무집행 방해 / 현상금 1000만원 ...**

등등의 단어들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가족들의 얼굴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강두 사진에는 **‘검거’** 도장이 희봉 사진에는 **X** 자표시와 **‘사망’** 도장이 무심하게 찍혀있다.

울컥하며 눈빛이 흔들리는 남일, 전단지를 고이접어 품 속에 넣고 다시 밤길을 서두른다.

골목의 끝 ... 차길 건너편으로 < 장씨 총포사 > 가게가 보인다.

엽총들이 전시된 유리창 안 쪽으로 커피 마시는 장씨와 총포사 처녀의 모습이 보인다.

**# 56 장씨 총포사 내부. 밤**

총포사 문을 열어젖히며 비틀 - 안으로 들어서는 남일

깜짝 놀라며 돌아보는 장씨와 처녀, 남일은 반가운 듯 마스크를 내리려는 순간,

캐비넷 뒷 편 공간에서 커피잔을 손에 든 순경하나가 슥 - 몸을 내민다 !

그 자리에 움찔 - 얼어붙는 남일

칼날같은 일순간의 정적 ... 정복 순경은 의아한 듯 남일과 장씨를 힐끔 바라보는데,

처녀 : ( 재빨리 ) 그릇 문 옆에 있어요 ! 본인 왼쪽에 ...

남일 : ... 아 네 !

능청스런 동작으로 출입구 옆에 늘어놓은 음식 그릇을 챙기기 시작하는 남일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태연한 동작까지 ... 영락없는 배달청년의 모습이다.

순경 : ( 커피잔 비우며 ) ... 사장님 그럼 전 이만 ...

장씨 : 아이구 네 ... 저기 파출소장님께 안부 좀 ... 내 한번 들른다 들른다

말루만 그래놓구 요새 연락두 못드리구 ...

순찰일지 같은 서류철을 챙겨들며 총포사를 휙 나가는 순경.

그릇들을 차곡차곡 챙기던 남일,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며 모자를 벗는다.

현기증을 느끼는 듯 몸을 비틀 - 하는 남일 ... 몹시 창백한 얼굴이다.

( 장면 바뀌면 ) 남일이 가져온 수배전단을 손에 쥐고 슬픔에 흐느끼는 장씨

남일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가게 안 엽총들을 뒤적거리고 있다.

장씨 : ( 전단지 사진보며 ) 아이구 희봉아 - 이 지지리 복두 없는 놈아 ... !

남일 : ......

장씨 : 그나저나 현서는 ? 찾는다구 그 난릴 피더니만 !

남일 : ... 현서 ... 현서는 사실 애초부터 씨발 ... ( 쿨럭 ) 강두형이 원래

꿈이랑 실제랑 헷갈리구 어쩌구 할 때가 많잖아요 ...

장씨 : 뭔 소리여 ?

남일 : 지 할아버지두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 같이 잘 있겠지 ...

눈빛 흐려지며 점점 횡설수설하는 남일, 식은땀이 얼굴 위로 줄줄 흘러내린다.

남일 : 아저씨 총 좀 ... 젤 쎈걸루 딱 하나만 ! 내 더 이상 민폐 안끼칠게 !

장씨 : 야 임마 ! 니가 무슨 총질을 하겠다구 그래 ?

남일 : 그럼 이 사람들 좀 불러줘요 ! ( 벽에 걸린 **‘엽우회’** 사진을 가르키며 )

짐승 잡는데는 최고 푸로들 아냐 ! ( 콜록 ) 인건빈 내가 댈테니까 ... 응 ?

장씨 : 진정하구 ... 너 일단 좀 앉어봐 ...

폐병 환자처럼 찢어질 듯 기침하는 남일, 간신히 몸을 추스르며 ...

남일 : 아저씨 나 사흘 안에 그 짐승 잡아 죽일꺼거든 ? 딱 사흘 안에 작살내구

그 담에 아버지 장례 치른다 ! 니미 ... 원수부터 갚아야 뭘 좀 ...

횡설수설 중얼거리다 휘청 - 쓰러지는 남일, 화면 급격히 암전.

**# 57 총포사 내실 / 바깥 ( 교차 )**

고요한 정적 속에 밝아오면 ... 남일의 시점화면으로 좁은 방의 천정이 보인다.

마치 환각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몽롱하게 울렁거리는 남일의 시점화면

총포사 처녀가 엽총을 손에 든 채 남일의 뺨을 찰싹찰싹 때려보고 있다.

처녀 : 정신 들죠 ?

남일 : ......

처녀 : ( 엽총 보여주며 ) 최신형 베레타예요. 자세 연습 쪼금만 하세요.

작동법은 지난번 꺼랑 별 차이 없습니다.

마치 이륙직전의 스튜디어스처럼, 빠르고 또박또박 설명하는 처녀.

낚싯대 가방에 엽총을 넣으며 보조주머니에 가득찬 총알들도 보여준다.

처녀 : 전부 ‘토리’ 예요. 잘만 쏘면 토리 한발루 코끼리두 죽습니다.

누운 채 고개를 끄덕이는 남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밖의 장씨 아저씨 모습이 보인다.

꽃분홍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펄펄 끓는 물에 걸레를 적셔 진열대를 닦고 있는 장씨.

유리면에 남일의 손자욱이 찍힌 부분을 김이 모락모락나는 걸레로 닦아낸다.

처녀 : 그리구 이거 ... ( 점점 말 빨라지며 )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두 알씩.

약봉지를 남일의 바지 주머니에 찔러주는 총포사 처녀, 서둘러 남일을 일으킨다.

뭐가 뭔지 머릿 속이 어지러운 남일, 몽롱한 얼굴로 처녀를 바라보는데 ...

처녀 : 시간이 없거든. 빨리 가방 매요.

남일을 부축하며, 힐끔 문 밖의 눈치를 살피는 처녀.

장씨, 여전히 남일이 손 댄 곳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닦고 있다.

테이블 위를 닦으며 슬며시 눈알을 돌려 수배전단지를 바라보는 장씨

장씨의 시점화면으로 **‘ 현상금 1000만원 ’** 글자가 보인다.

처녀 : 사장님 전화한지 벌써 몇 분 지났어요. 일분 내루 경찰들 몰려와요.

남일 : ... !

눈빛 일그러지는 남일 ... 믿기지 않는 듯 문틈으로 장씨 아저씨를 다시 바라본다.

남일을 창문 쪽으로 몰아 붙이는 처녀, 비좁은 뒷 골목과 통해있는 창문을 연다.

코딱지만한 창문을 통해 비참한 자세로 머리부터 빠져나가는 남일.

처녀, 지폐 몇장을 남일 엉덩이의 뒷주머니에 쑤욱 찔러 넣으며 ...

처녀 : 얼마 안되요. 급할때만 써요.

남일 : ... ( 창문 너머로 ) 저기 ... 이름이 ?

순간 방문 와락 열리며 흰 장갑에 마스크한 사복형사들이 들이닥친다 !

엽총이 든 낚시가방을 황급히 창 밖의 남일쪽으로 내보내는 처녀,

그러나 형사들과 장씨 아저씨, 처녀를 밀쳐내고 낚시가방을 끌어당기고 ...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는 좁은 방

엽총은 챙기지도 못한 채 빈 손으로 골목길을 달려가는 남일

형사들의 아우성과 장씨 아저씨의 고함소리가 뒤편으로 아련히 멀어져 간다.

( 강두 ) : 으아아악 -

**# 58 어딘가, 격리공간**

창문도 없는 비좁은 밀폐공간 ... 괴성을 지르며 꿈틀거리는 강두.

백색 방호복으로 무장한 남자 조무사들 여러명이 강두를 힘으로 짓누른다.

강두의 몸이 간신히 제압되자 여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강두에게 다가온다.

꿈틀거리는 강두의 팔뚝을 향해 아슬아슬 다가가는 주사바늘.

날카로운 바늘 끝이 강두의 살갗에 닿을 듯 말 듯 ...

괴력의 강두, 다시 끙 - 남자들을 밀쳐내자 또다시 엉망진창 뒤엉키는 사람들.

**# 59 같은 장소. 시간 경과**

고요한 정적 ...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강두, 시뻘건 두 눈을 똑바로 뜨고있다.

의사 두 명, 멀찌감치 서서 강두를 바라보며 ...

의사 1 : 진짜루 마취제 정량 놨다말야 ? 근데 저래 ?

의사 2 : 분명히 투여했슴다. 그리고 한시간 지난겁니다.

의사 1 : ( 기막힌 듯 ) ......

충혈된 두 눈이 괴상하게 번쩍이는 강두, 양 손 엄지로 관자놀이를 슬슬 문지르고 있다.

의사 1 : 뭐야 그럼 ? 어쩌란 말야 ? ... 조직검사 당장 끝내야 되는 판에 ...

의사 2 : 사실 본인은 ... 검사를 할테면 하라구 그러거든요.

등을 쑤시건 배를 째건 아픈건 자기가 알아서 참겠답니다.

의사 1 : 생살을 쨀테면 째라 ... 마취만 말아다오 ?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는 표정으로 강두를 바라보는 의사 1

강두는 괴상한 표정으로 정신을 집중하며 앉아있다.

**# 60 같은 장소, 시간경과**

강두 : 으 - 아아 - 아으으윽 !

처절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두 눈 부릅뜨는 강두, 이빨 갈리는 ‘으드득’ 소리가 울려퍼진다.

조직검사용 쇠바늘이 강두의 쇄골 위로 쑤욱 - 섬칫하리 만큼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바라보는 의사들도 얼굴을 잔뜩 찡그린다.

의사 1 : ( 히스테리 ) 도대체 왜 저런다니 ! 왜 ! 왜 ! 왜 !

의사 2 : ......

의사 1 : 마취를 해주면 눈감구 자지 왜 안자구 지랄이야 ? 왜 ! 왜 !

의사 2 : 전화오면 나간댑니다.

의사 1 : 뭐 ?

의사 2 : ( 턱으로 가리키며 ) 손에 쥔거 함 보세요 ...

강두, 두 손으로 ‘으스러질 듯이’ 자기의 핸드폰을 움켜지고 있다.

의사 1 : ... 왜 저래 ?

의사 2 : 안자구 나간다구요. 환생한 딸 만나러 ...

맥이 탁 - 풀려버리는 의사 1, 더 이상 신경질도 안내고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

믄득 칸막이 저편에서 영어로 뭔가 얘기하며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트 풍의 젊은 한국인 의사와 품격있는 얼굴의 40대 초반 미국의사,

고통에 몸을 떠는 강두를 보고 깜짝 놀라며,

미국의사 : Oh my god ! What's this ? 맙소사 ! 이게 무슨 ...

한국의사 : eh oh ... well I guess it is 이게 저 ... 상황이 ...

미국의사 : Oh no ... let's stop it first ! 일단 좀 중단합시다 !

한국의사 : ( 간호사에게 ) 잠깐 스톱.

조직검사 진행을 중단하는 간호사, 긴장 풀며 몸을 부르르 ... 떠는 강두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강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질문하는 미국의사.

미국의사 : Mr. Park ! I heard your daughter is alive ...

한국의사 : ( 통역 ) 박강두씨 당시 딸이 살아있다면서요 ?

눈이 번쩍 뜨이는 강두, 멍 - 한 표정으로 미국의사를 바라본다.

미국의사 : Are you serious ?

한국의사 : 진짭니까 ?

강두 : ( 떨리듯 ) ... 예 ... 내 딸이 지금 강변에 하수구에서 날 기둘리 ...

한국의사 : Yes. My daughter is waiting for me in the dark ditch of Han River.

미국의사 : Jesus ! Why didn't you report to the police or the military ?

한국의사 : 아니 왜 경찰이나 군대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

강두 : ... ( 울컥하듯 ) ... 그게요 ...

미국의사 : Haven't you thought of talking to TV station or any kind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

한국의사 : 방송국이나 인권단체 같은데라도 얘길 좀 해보지 그랬어요 !

강두 : 그게 ... 그게 ... ( 울컥 ) 아무도 ! ... 내 말을 안들어줘 !

한국의사 : Because nobody fuking ! listen to me ...

열정적으로 통역하는 한국의사, 중간에서 감정까지 실어가며 애절하게 표현한다.

강두 : ( 흐느끼듯 ) 그러게 내 속이 지금 씨 - 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

한국의사 : ...... ( 난감한 듯 ) 음 ...... so my heart is ... you know ...

( 중얼 ) 아 ... 썩어 문드러지는 ... 음 deeply ... desperately ...

강두 : 으흐흐흑 현서야 ... 아빠가 미안하다 ... 흐흑 ...

강두 앞으로 성큼 다가온 미국의사, 눈물 맺힌 강두의 동공에 후래쉬를 비춰보더니 ...

미국의사 : 역시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한게 맞네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의사 : 그렇죠 ?

미국의사 : 전두엽 쪽에 바이러스가 있는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과거에 정신

병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한 착란증세를 보이는건 불가능하죠.

한국의사 : 맞아요. 자기가 만든 망상세계에 완전 백퍼센트 몰입한 상탭니다.

흐느끼다가 어느덧 두 사람의 영어 대화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강두,

뭔가 자신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느끼는지 점점 더 집중하는 얼굴인데 ...

미국의사 : 역시 이 사람 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국의사 : 예 ?

미국의사 : ( 강두 머리 만지며 ) 바이러스가 이 속에 꼭 있을겁니다 ...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돼.

한국의사 : 뭔 얘기죠 ?

미국의사 : 모르셨나 ? 어제 사망한 미 8 군 도날드 하사관 사체부검에서 바이러스가

결국 발견이 안됐습니다. 다른 격리수용 환자들 한테서도 마찬가지였구요.

한국의사 : 오 ...

미국의사 : 외부에는 아직 비밀로 하구 있구요. 조사팀 소수 핵심멤버들만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 한마디루 지금 어디에두 바이러스가 없어요 ...

There is no virus ever ...

중대한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술술술 말해버리는 미국의사.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데 ... 순간, 듣고만 있던 강두가 갑자기 끼어들며

강두 : ... 노 바이러스 ? ...

흠칫 - 놀라며 강두를 바라보는 두 의사들 ...

‘설마 ...’ 하는 표정으로 감시 강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강두, 뭔가 이상한 듯 미국의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

미국의사 : 음 ... ( 갑자기 독일어로 ) 아마도 초기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최종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괴 바이러스가 나왔다구 너무 일찍

발표를 해버린게 아니었나 ...

한인의사 : ( 역시 독일어로 ) 하하 ... 어쩌죠 ? 지금 바이러스 땜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판국인데 ...

은근히 강두 쪽을 신경쓰면서 계속 독일어로 대화하는 두 의사들.

대화 내용을 상상하듯 온 정신이 집중되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강두의 눈빛 ...

미국의사 : 그러게요. 에이전트 옐로우 살포 일정까지 다 잡혀있는데 말입니다.

한국의사 :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사람 뇌에서 꼭 나올겁니다. 바이러스가 ...

미국의사 : 물론이죠 ! 물론 전두엽 조직검사를 진행합시다.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두 : ( 갑자기 ) ... 바이러스가 없구나 ?

한국의사 : ... !!

미국의사 : ... ?

강두 : 그치 ? ... 바이러스가 없는 거지 !

**# 61 같은 장소. 시간 경과**

강두 : ( 절규 ) 야이 씨 - 이발 바보 새끼들아 ! 이거 안 놔? 손 안치워 ?

꽁꽁 묶인 채 몸부림치는 강두의 머리에 금속성 고정기구 Head Frame을 씌우려는 간호사.

강두의 머리를 고정시키면서 앞이마에 점을 찍어 전두염 공략부위 ( ? ) 를 표시한다.

간호사 : ( 강두 머리 붙잡으며 ) 진정하세요. 머리 움직이지 마시구 ...

강두 : 헛지랄 그만하고 이 씨발것들아 ... 있지도 않은 걸 이 개지랄을 !

빨리 풀어 ... 빨리 날 내보내 달란 ... 으아아악 현서야 ... !

Micro Aspiration을 진행하는 듯 가느다란 드릴이 강두 이마를 향하도록 세팅이 이뤄지고

몰려든 의료진들의 팔과 손들이 강두 머리 주변을 분주히 오간다.

온 몸 꿈틀대는 강두, 원통과 분노, 절망이 뒤섞여 완전히 폭발점에 도달한 듯 보이는데 ...

문득 의사들 손 틈새로 누군가의 손이 슬며시 들어와 강두의 손을 꽉 잡아준다.

고개 돌려 바라보는 강두, 의사들의 흰 옷 틈새로 아버지 희봉의 얼굴이 잠깐 보인다.

피눈물 맺히는 강두 ...

희봉이 잡았던 손 - 핸드폰을 움켜 쥔 손이 부르르 떨린다.

**# 62 하수구 입구. 밤**

어둠 속 빛을 뿜어내는 핸드폰 액정창이 보인다.

A4사이즈 베터리 두 개를 임시충전기에 넣어 핸드폰에 끼우는 빠른 손놀림 ...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두 눈 ... 박남주다.

땀과 얼룩으로 뒤범벅된 얼굴 뒤엉킨 머리칼 ... 정글 속에 홀로 남겨진 게릴라의 몰골이다.

하수구 밖으로 보이는 불켜진 한강다리가 남주의 등 뒤로 멀어져 가는 가운데 ...

하수구 안쪽으로 돌진해 들어가면 짙은 어둠 속으로 후래쉬를 비추는 남주.

남주 : 현서야 !

**# 63 고수부지. 밤**

둔치의 경사면 아래 쪽 강물 바로 옆을 따라 웅크린 자세로 이동중인 남주.

노련한 빨치산처럼 빠르고도 소리 없이 어둠속을 움직인다.

둔치 위 쪽 순찰중인 군인들 몇 명이 나타나자 대뜸 강 물 속으로 들어가는 남주,

두 눈만 빼곰이 물 밖으로 내민 채 소리없이 앞으로 전진 한다.

**# 64 성산대교 아래 면. 새벽**

어슴프레 동이트는 새벽 멀리 보이는 성산대교를 향해 줌 인 해 들어가는 카메라.

성산대교 아랫면 철골구조들 틈새의 가느다란 통로로 줄기차게 전진하는 남주

발아래 까막득히 출렁이는 강물에 아랑곳없이, 거침없이 강 건너편으로 이동중이다.

**# 65 하수구 속. 낮**

꽤 큰 하수동굴 속을 빠르게 전진하며 후래쉬 불빛을 휘둘리는 남주.

하수구 한 켠에 모여있던 쥐들이 혼비백산 흩어진다.

남주 : 혀 - 언 - 서 - 야 !

**# 66 매점 속. 낮**

/ 직부감. 쓰러지듯 누워 큰사이즈 생수병을 입 위에 세워놓고 벌컥벌컥 들이 붓는 남주

/ 직부감. 기절하듯 잠에 빠진 남주 ... 코를 가늘게 골다가 갑자기 번쩍 - 눈을 뜬다.

/ 선반에 생수병을 눕혀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해놓고 정신없이 세수하는 남주

/ 소세지와 건빵, 계란과 베터리 등등을 허겁지겁 벨트쌕에 챙겨넣는 남주

매점 밖에서 들여오는 두두두두 - 방역기 소리 ... 방역차가 점점 다가오는 듯

**# 67 매점 밖 둔치. 낮**

매점 옆을 지나는 방역차의 흰 연기가 뭉게뭉게 매점 주위를 뒤덮는 찰나 ...

날렵하게 매점 밖으로 뛰쳐나오는 남주, 소독약 연기 속에 몸을 숨긴 채 달려간다.

구름 속을 뚫고 나오듯 몸에 연기를 희감은 채 날렵하게 새로운 하수구로 진집하는 남주.

**# 68 하수구 속. 낮**

건빵을 우적우적 씹으며 하수구 속을 돌진하는 남주 ...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모습

**# 69 마포대교 아래면. 저녁**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다리아래 통로로 즐기차게 달려가는 남주,

문득 들려오는 사람들의 인기척에 굵은 철골구조 뒷편으로 재빨리 숨는다.

공사장 헬멧을 쓴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교각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헬멧남자들, 도면과 장비등을 가지고 교각의 이것저것을 체크하는 모습인데 ...

그들 중 백인남자 두 명의 유니폼 등짝에 노랗게 쓰여진 글자가 남주의 는길을 끈다.

**‘ A G E N T Y E L L O W '** ( 에이젼트 엘로우 )

**# 70 거리 어딘가. 저녁**

화면가득 노란 전단지에 인쇄된 **‘ 에이젼트 옐로우 한강살포 결사반대 ’** 문구가 보인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전단지 ... 받아든 손의 주인공은 박남일이다.

빠르게 걸으며 전단지를 읽는 남일의 시점으로 휙휙 지나가는 문장들 ...

***‘ 안전성 입증안된 에이젼트 옐로우 전격 살포의 진짜 이유는 ? ’***

***‘ 에이젼트 옐로우 살포 저지를 위한 시민 총궐기 / 24일 (토) 11시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한 손에는 전단지 다른 손에는 휘발유통을 들고 빠르게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남일.

**# 71 개천가, 반 (半) 복개지역 아래. 밤**

넓은 복개천 아래의 컴컴한 사가지대 군데군데 뒹구는 쓰레기와 노숙자들의 침구 보인다.

일렬로 세워놓은 소주병에 조심스레 휘발유를 따라붓고 있는 남일.

한 노숙자가 빈 소주병들을 더 들고와서 남일에게 손을 벌린다.

천 원을 더 주자 그제서야 소주병을 넘겨주는 노숙자.

노숙 : 뭘 이렇게 많이 만드나 ? 뭐에다 쓰게 ?

대답 없이 아까 받은 노란 전단지를 건네주는 남일, 계속 화염병 만들기에 몰두한다.

남일 : 짐승들이 원래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노숙 : 짐승 ? ( 전단지 들여다보며 ) 데모에 웬 짐승 ?

남일 : 그게요 ... ( 입으로 헝겊조각 찢으며 ) ... 그동안 텅 비었던 고수부지에

간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일테니까 괴물 입장에선 얼마나 좋아 ?

완전 진수성찬이지 씨바 ...

노숙 : 따라서 ( 전단지 다시보며 ) 여기 꼭 나타난다 ? 그 놈이 ...

남일 : 그러쵸. 백 퍼센트.

오줌누며 고개 끄덕이는 노숙자, 소주병에 심지를 꾹꾹 - 쑤셔넣는 남일의 손동작을 보며

노숙 : 아주 도사구만 ... 손이 안 보인다 손이 ! 딸딸이 저리가라네 그냥 ...

남일 : ( 피식 ) 내가 잘하는게 이것 뿐이 없어요.

노숙 : 그러게 공부를 좀 그러케 열씨미 했으면 ... 요 극렬 좌경 빨갱이 새끼야

남일 : 나, 아테네올림픽 화염병 남자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 ...

( 장면 바뀌면 ) 완성된 화염병 하나에 불을 붙여 들고 있는 남일

저 멀리 기둥에 기대어 서있는 노숙자, 머리 위에 소주병 하나를 세워놓고 있다.

화염병을 휙 - 던지는 남일, 우아한 빛의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을 날아가는 화염병 ...

자신을 향해 정확하게 화염병이 날아오자 화들짝 놀라며 피하는 노숙자.

노숙자가 서있던 정확하게 명중, 터져버리는 화염병.

기둥을 감싸며 화악 -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꽃 ... 순간적으로 굴다리 아래가 환해진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남일, 불꽃을 단은 눈동자가 이글거린다.

**# 72 격리공간**

전두엽 조직샘플 채취가 끝난 듯 이마에 조그맣게 꾀맨 자국이 있는 강두.

흰 얼굴의 잔호사가 강두의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다.

차갑게 식은 얼굴로 정면을 보고 있는 강두의 눈동자 ... 슬픔과 광기로 번뜩거린다.

**# 73 괴물 은신처. 밤**

어두운 구멍속에서 잠든 괴물을 내려보는 현서의 겁에 질린 두 눈동자.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괴물의 등짝 ... 그리고 그 위로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옷가지를 연결한 생명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배불리 먹은 탓인지 괴상한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괴물,

입주변에는 찢어진 속옷가지와 핏자국 등등 포식 후의 끔찍한 잔해들이 봉이고 ...

자면서도 반쯤 뜨고 있는 눈동자의 모습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구멍 밖으로 살며시 몸을 내미는 현서, 자신의 신발을 휙 - 괴물 쪽으로 던져본다.

포물선 그리며 날아가 괴물의 등짝에 퉁 - 떨어지는 현서의 구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괴물 ... 눈을 반쯤 뜬 채 깊은 잠에 빠져있다.

현서 : ( 다그치듯 ) 저거 봐 ! 괜찮다니까 !

세주 : ... 그래두 ...

현서 : 세주야. 이 기회를 놓치면 왼전히 끝장이야 ...

세주 : ( 울듯 ) 무서워 ...

현서 : 잘 봐 꼬리에서 등짝위루 ... 몇 발짝만 뛰면 줄이 딱 잡혀 ! 순식간이라니까 !

세주 : ... (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 ...

조급한 안절부절 이야기하는 현서, 불안초조한 모습이다.

현서 : 하루종일 이렇게 간다 만다 싸우다가 벌써 몇 시간째야 ?

세주 : ...

현서 : 시간만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제 잠에서 깨면 어쩔래 ? 저쪽편 시체들은

하나씩 하나씩 ... 결국 다 먹었어. 이제 우리 잡아먹을 차례란 말야 몰라 ?

세주 : 그냥 이 속에 있음 되잖어 ... ( 흐느끼듯 ) 구멍 속에 있자 계속 ...

현서 : 소용없어 ... 아까 생각 안나 ? 너 꼬리에 잡혀서 끌려나갔잖아 ...

세주 : ...

현서 : 아깐 저 놈이 그냥 장난치다 놔준거야 ... 우릴 먹으려구 마음만 먹었으면 ...

뭔가 살벌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는 현서, 이 어둠 속 모든 것이 지긋지긋한 듯 ...

괴롭고 불안하고 미칠 듯한 표정이 되어있다.

흑흑 울기 시작하는 세주, 괴물 쪽을 다시 바라보지만 ...

아무리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듯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든다.

현서 : ... ( 잠시 생각하다 ) 좋아 그럼 ... 이러케하자

세주 : ... ?

현서 : 누나가 먼저 뛰어가서 저 줄을 잡으께 ...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

현서가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대로 화면도 고스란히 그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현서 : ... 줄을 위로 끌어 올린 담에 이 쪽으로 가지고 와서 너 한테 내려줄께 ...

그럼 넌 바루 요 구멍 앞에서 줄을 타구 올라오면 되는거지 ... 어때 ?

세주 : ( 잠시 생각하다 ) ... 손이 안닿잖아 줄이 짧아서 ...

현서 : 누나 교복이랑 치마랑 있잖아. 이거라두 더하면 돼지 어때 ?

세주 : ...

현서 : ... 알겠지 ?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현서를 바라보는 세주.

불안한 눈빛을 애써 감추는 현서 ... 고개를 돌려 괴물 쪽을 바라본다.

심호흡을 길게 하고 자신이 뛰어가야할 경로를 확인하듯 ... 찬찬히 흝어보는 현서

뼈들이 흩어져있는 바닥을 지나 - 경사진 괴물의 꼬리를 지나 -

악어의 등처럼 딱딱한 괴물의 등짝을 지나 - 점프하면 그대로 생명줄 ...

멍하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현서

현서 : ( 중얼 ) ... 이때쯤이면 ... 아빠가 올 줄 알았는데 ...

세주 : ... 뭐 ?

현서 : ( 눈물 닦으며 ) 무서우면 가지마 누나 ...

눈물 고인 채 돌아보며 씨 - 익 웃어보이는 현서, 세주의 입술에 꾸욱 뽀뽀를 해준다.

그런 현서를 멍하게 바라보다 손으로 입가를 슥 - 닦는 세주.

순간 ... 구멍밖으로 달려나가는 현서.

흰 양말만을 신은 채 빠르게 달려나가는 현서, 숨죽이는 세주.

마침내 괴물의 꼬리로 - 등짝 위로 - 숨가쁘게 달려가는 현서의 두 발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서의 몸.

눈을 뜬 채 자고 있는 괴물의 눈동자

괴물의 등짝 최고점에서 사뿐 - 점프하는 현서의 몸

현서의 두 손이 생명줄을 꽉 ! 움켜쥐는 순간 -

**# 74 격리공간**

화면 가득 번쩍 뜨이는 강두의 두 눈.

**# 75 굴다리아래. 밤**

자다가 두 눈을 번쩍 뜨는 남일 ... 노숙자 스티로폴 구석에 누워있다.

**# 76 마포대교 아래. 새벽**

번쩍 눈을 뜨는 남주 ... 철골구조 뒤에 숨어있다가 웅크린 채 잠이 들고 말았던 듯,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충혈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어둑한 새벽기운, 회색빛 강물, 스산한 바람 소리 ...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그러나 ... 문득 다리 저면, 철골 구조 아래에 매달린 뭔가 시커먼 형체가 눈에 보인다.

유유자적 느긋한 자세로 매달려있는 것은 ... 웅크린 괴물이다 !

매달린 상태로 자기 복부의 돌기 중 하나를 입에 물고 쪽쪽 빨고 있는 괴물.

마치 자신이 자신에게 오럴섹스를 해주듯 기괴망측한 모습이다.

아무런 동요없이 ‘ 명상적인 ’ 얼굴로 괴물을 바라보는 남주,

시선은 괴물에 고정시킨 채 천천히 왼 손을 더듬어 바닥에 놓아둔 활을 잡는다.

브드러운 바람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반짝이는 남주의 두 눈.

생선의 눈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괴물의 눈 ...

마치 표적 한 가운데에 동그라미처럼 그 눈을 향해 조용히 화살을 겨누는 남주.

마침내 피슉 - 허공을 가르는 화살 !

정확하게 괴물의 눈동자에 퍽 - 꽃히는 퍼펙트 골드 !

끄웨액 - 이상한 소리를 뱉으며 수직으로 낙하하는 괴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는 남주, 강물에 풍덩 빠지는 괴물을 내려다본다.

눈에 화살이 꼽힌 채 작살 맞은 고래처럼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헤엄쳐가는 괴물.

재빠르게 교각 옆 사다리로 아래를 향해 내려가며 괴물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남주.

**# 77 교각 아래, 둔치 - 거대 하수구 입구**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헤엄쳐가는 괴물 ... 육지에서 뒤따라 달리는 남주

저멀리 앞 쪽에서 괴물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화살을 활에 끼우는 남주, 괴물과 50 여 미터 거리에서 활을 겨누는데

괴물, 교각아래 거대한 하수구 입구로 몸을 숨기며 기어 들어간다.

쫒아가는 남주 ... 여지껏 보지못한 실로 ‘ 거대한 하수동굴 ’ 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남주, 핸즈프리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통화버튼을 누른다.

화살 박힌 괴물의 눈에서 뚝, 뚝, 떨어진 자주색 핏자국이 바닥에 선명하다.

띠리리링 - 남주 귀에 들리는 핸드폰 신호음이 화면 위로 들려오는 가운데 ...

**# 78 격리 공간**

커다란 주사기 속으로 쭈우욱 - 빨려 올라오는 강두의 붉은 피

흰얼굴의 여간호사가 혈액을 한껏 뽑아내는데 ...

지이이잉 - 지이이잉 - 강두의 핸드폰이 진동을 시작한다 !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머리에 붕대를 둘러멘 강두, 핸드폰 폴더를 연다.

강두 : ( 잠긴 목소리 ) 남주야 ...

**# 79 거대 하수구**

한강을 뒤로하고 거대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남주, 활시위를 팽팽히 겨눈 채 ...

남주 : 찾았어. 엄청나게 큰 하수도야. 지금 들어가고 있어.

(강두) : ... 어디냐 ?

남주 : 원효대교 북단 바로 아래. 핏자국을 따라서 들어오면 ...

문득 말 멈추는 남주, 어둠 속에서 두두두 ... 들소가 돌진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 !

남주, 정면을 향해 급히 화살을 겨누는 순간 어둠 속에서 돌진해 나오는 시커먼 괴물 !

1톤 트럭에 정면으로 들이 받히듯 남주의 몸이 공중에 부 - 웅 떠오르고

**# 80 격리 공간**

(남주) : 아 - 악 ( 퍽 끊기는 통화 )

강두 : ......

냉정한 눈빛으로 폴더를 덮는 강두, 고개를 돌려 흰 얼굴의 간호사를 바라본다.

피가 가득한 주사기를 꽉 쥔 채 안경테 너머로 강두를 바라보는 간호사.

강두 : 나가자 ...

포커스 이동하면 격리공간에 바글바글한 의료진들 ... 어리둥절 강두를 바라본다.

**# 81 거대 하수구**

하수구 옆 진입로와 벽면 사이에 있는 비좁은 틈새로 깊숙이 떨어져 있는 남주.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활을 손에 쥐고 쓰러져 있다.

틈새 아래를 내려다보며 혓바닥 낼름거리는 괴물, 머리를 들이밀어 보려고 하지만,

워낙 좁은 틈새이다 보니 잘 되지 않는다.

화살 꽂힌 눈이 더욱 아파져 신경질 내는 괴물, 괴성을 내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 82 격리 공간**

화면 가득 강두의 피가 가득한 대형주사기.

강두, 간호사를 뒤에서 붙든 채 주사기 바늘 끝을 흰 얼굴 간호사의 목에 대고 있다.

강두와 인질 간호사가 걸어나옴에 따라 바싹 긴장한 채 물러서는 겹겹의 의료진들

강두 : 바닥에 엎드려 ...

의료진들이 비좁은 바닥에 앞 줄부터 착착 엎드리면 출구 문짝이 보인다.

강두 : 배에 힘줘, 들

엎드린 의료진들을 사뿐히 ‘즈려밟으며’ 간호사를 끌고 나가는 강두.

격리공간의 철문을 발로 뻥 - 차면 활짝 열리는 문짝 -

세찬 바람이 들이치는 가운데 문 밖으로 보이는 뻥트인 회색하늘과 빌딩 옥상들 ...

**# 83 옥상**

그동안 강두가 갇혀있던 격리공간이 종합병원 옥상에 임시로 설치된 철제 컨테이너

내부였음이 이제서야 드러나며 ... 옥상으로 나온 강두와 강호사의 모습이 롱쇼트로 보인다.

강두 주변을 동그렇게 둘러싼 의료진들, 강두의 움직임에 따라 슬금슬금 뒤로 물러난다.

옥상 간이 테이블에서 짜장범벅을 먹고 있던 덩치 좋은 순경 두 명,

챤스를 노리며 슬며시 일어서다 강두와 눈이 딱 마주친다.

강두 : 앉어 씨밸넘들아 세균범벅되기 싫으면 ...

강두, 주사기로 자기 피를 찍 - 한번 쏴준다.

질겁하며 뒤로 물러나는 순경과 의료진들 ... 엉거주춤 뒤 쪽으로 길을 터준다.

강두 : 니네 바이러스 좋아하지 ? ( 피찍 - 뿌리며 ) 자, 바이러스 !

**# 84 병원건물 옆면**

건물 벽면에 노출된 가파른 비상계단에 흰 옷의 사람들이 떼지어 슬금슬금 내려가는 진풍경

바람소리가 세찬 가운데 계단 아래 위로 점점 더 불어나는 관계자들,

강두와 인질간호사가 내려가는 리듬에 맞춰 빨랐다 느려졌다 한다.

**# 85 병원 앞마당**

강두 : 한 새끼라도 따라오면 ... ( 주사기 누르며 ) 그 즉시 쑤신다 !

조금씩 뒷걸음치며 문 열린 앰블런스에 올라타는 강두와 인질 간호사

사람들 어쩔쭐 몰라 그저 바라보는데 ... 강두, 머리에 감은 붕대를 휙 풀어던지며

강두 : ( 운전사를 향해 ) 원효대교 !

**# 86 거리**

사이렌 요란하게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앰블런스

오가는 행인들 틈에서 앰블런스를 멍하게 바라보는 ( 씬 71 의 ) 노숙자.

큼지막한 휘발유통을 들고 뭔가 어수선한 인도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노숙 : 아 ... 좆나구 무겁네 ...

문득 군밤 치어카 하나가 노숙자를 앞질러 덜컹덜컹 달려간다.

노점상 단속반이 뜨는지 군밤, 오뎅아줌마들 전속력으로 자기 리어카를 끌며 달린다.

괜히 군밤 리어카 하나를 같이 밀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노숙자

리어카 위에 켜져있는 배터리 TV의 덜컹대는 화면에서 시위관련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다.

***기자 : ... 이 시간에도 속속 인파들이 집결하는 가운데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녹색연한 및***

***주요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직 )... 그리고 현재 시위 참가자들이 강변 곳곳에서 워낙 다양한 루트로***

***한강 둔치에 지입하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뚫려버린 군경저지선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가***

***되버렸 ... ( 지직 ) ... 에이젼트옐로우 살포 예정시각인 12시 까지는 ...***

**# 87 거대 하수구 앞**

음악과 함께 ... 거대한 하수구 입구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카메라.

시커멓게 아가리를 벌린 암흑 쪽으로 다가가는 강두의 뒷모습이 화면에 들어온다.

어둠의 입구에 우뚝 선 강두, 괴물의 핏자국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 88 하수 동굴 속**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강두, 띄엄띄엄 이어지던 괴물의 핏자국이 어느 순간 뚝 끊긴다.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강두 ... 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문득 어둠 속 멀리서 가늘게 들려오는 사람의 울음소리 !

강두 : ... 현서니 ?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강두, 암흑 속으로 깊이 파묻혀 들어간다.

**# 89 은신처 부근 - 은신처 내부**

현서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을 헤메이던 강두 ... 발에 뭔가가 툭 걸린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철망판에 끼여있는 **ㅏ**자 모양의 경찰 곤봉 !

그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린 옷가지들 ... 그리고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는 수직의 공간 ...

강두 : ( 떨리듯 ) ... 혀 ... 현서야 ! ...

강두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칠 뿐 ...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발아래의 어둠 속 공간

철망판 끝에서 줄을 붙잡는 강두, 휘청 - 매달리며 아래로 내려간다.

바닥에 널부러진 사람의 뼈다귀들 사이로 떨리는 발을 딛고 내려서는 강두.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본다.

강두 : 혀 ...

목이 잠겨 소리조차 잘 안나오는 강두, 저편 구석쪽 구멍에서 희미하게 뭔가를 본다.

조심스레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강두, 숨을 죽이며 구멍 쪽을 들여다보면 ...

구멍 끄트머리에 현서의 조그만 손이 힘없이 뻗쳐 나와있는 것이 보인다 !

강두 : ... 아 ... !

떨리는 손으로 와락 - 현서의 가냘픈 손을 붙잡는 강두

손을 붙잡고 구멍 밖으로 몸을 끌어내리는 순간 ...

현서가 아닌 처음보는 남자아이의 얼굴 - 세주의 얼굴이 구멍 밖으로 나온다.

잠시 멍 - 하게 세주의 피묻은 얼굴을 바라보는 강두, 시간이 정지된 듯 넋이 나갔다가

강두 : 뭐야 ... 너 ...

구멍 안쪽을 들여다보는 강두, 막힌 구멍 속에는 아무도 없다.

강두 : ( 떨며 ) ... 이 ... 이게 ...

정신이 드는지 눈을 뜨는 세주, 낮선 강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넋이 나간, 물고기처럼 멍한 세주의 눈동자

강두 : ( 세주를 붙잡아 세우며 ) 야, 너 ...

세주 : ......

강두 : 너 ... 너 여기 혼자 있었어 ?

세주 : ( 도리도리 ) ...

강두 : 누나 ... 중학생 누나 있었지 ! 그지 !

세주 : ( 끄덕끄덕 )

강두 : 어딨어 ?

넋나간 듯 고개만 끄덕이던 세주, 멍하게 강두 얼굴을 바라보다가 ...

세주 : ... 현서 누나가 ...

강두 : 그래 ! 현서 ! 박현서 !

세주 : 아 ......

강두 : ( 세주 잡고 흔들며 ) 어딨어 ! 어딨냐니까 ! 현서 !

세주 : 밟으면 어떡해 ...

강두 : ... ? !

강두의 발 아래를 바라보는 세주, 강두도 섬칫 - 하여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 ...

강두의 신발 주변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붉은 피 ... 그리고 갈갈이 찢어진 여중생 교복 !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교복 조각을 집어드는 강두 ...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교복조각 ... 명찰에 **‘ 박현서 ’** 이름 석자가 또렷이 보인다.

강두 : 으으 ... 아 ... 아 ... 아 ...

온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짐승처럼 이상한 소리를 토해내는 강두.

강두 : 어떻게 ... 어떻게 ... 이 ... 이이 ...

세주 : ...

강두 : ... 아빠가 왔는데 ... 아빠 왔는데 ... 이 ...

호흡 거칠어지며 온 몸을 떠는 강두, 그러나 세주는 그저 멍한 얼굴로 강두를 바라본다.

그저 무표정한 세주를 보며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는 강두.

강두 : 너 ... ( 세주 멱살을 잡으며 ) ... 뭐야 ... 같이 있었다메 ...

세주 : ...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괴물의 눈빛이 된 강두, 축 늘어진 세주의 멱살을 마구 흔들며

강두 : 왜 ... 왜 현서만 이러케 ... 같이 있었는데 ... 이 새끼야 ...

세주 : ...

강두 : 너만 멀쩡하구 이 개 -새끼야 ... 으으 ... 현서는 이렇게 피떡이 ...

... 으으 이 나쁜 새끼 ... 으아아아 ... 아아아

핏덩어리 토해내듯 절규하는 강두, 세주의 조그만 얼굴을 움켜쥐고 마구 뒤흔든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한 눈빛으로 흔들거리는 세주.

세주 : ... ( 멍하게 ) 맞어 ...

강두 : ... ?

세주 : 다 봤어 ... 전부 다 ...

*< 인터컷 > 현서와 세주가 간다 못간다 실갱이 하는순간들 마지막으로 현서가 세주에게 뽀뽀하는 순간 등등을 ... 자기 꼬리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괴물의 섬칫한 시점화면*

강두 : ......

*< 인터컷 > 현서가 점프하여 생명줄을 콱 - 붙잡는 그 순간 ... 괴물의 반쯤 뜬 눈.*

*악착같이 줄을 잡고 올라가던 현서, 문득 동작을 멈춘다.*

*현서, 창백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미 자신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괴물의 꼬리.*  
*구멍 속에서 내다보는 세주의 시점으로 ... 꼬리 끝의 현서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는 괴물.*

세주 : 누나 ...

*< 인터컷 > 현서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고 꼬리를 거두는 괴물, 가만히 현서를 바라만 본다.*

*호흡 멈추어 구멍 쪽을 돌아보는 현서, 세주 또한 숨죽이며 현서를 바라보고 ...*

*시간이 멈춘 듯 ... 적막 속에 모든 것이 정지된 숨막히는 모멘트 ...*

*순간 ! 스타트 하는 현서 ! 전력질주로 구멍을 향해 달려오고*

*번쩍 - 뜨이는 괴물의 커다란 눈*

세주 : ( 울먹이듯 ) ... 누나가 ... !

*< 인터컷 > 구멍 입구로 튕겨 나가며 현서를 향해 손을 내뻗는 세주*

*구멍 바로 앞까지 달려온 현서를 향해 폭풍처럼 덮쳐오는 괴물의 커다란 아가리 !*

*손을 내민 세주의 얼굴에 촥 - 흩뿌려지는 현서의 붉은 피 !*

세주 : 으아아앙 - !

가슴 속 응어리가 폭발한 듯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는 세주.

갓난애기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는 ... 차라리 아이다운 모습이다.

그런 세주를 바라보다 문득 사람의 눈빛으로 되돌아 오는 강두 ...

그제서야 뒤늦게 너무나도 뒤늦게 ... 세주를 와락 - 끌어안는다.

세주의 조그만 몸뚱이를 품 속 깊이 끌어안고 엉엉 우는 강두.

하염없이 계속 세주의 등을 쓰다듬어준다.

멀리 울려퍼지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 ...

순간 강두의 뒷어깨에 진홍색 피가 두둑 - 몇방울 떨어져 내린다.

( 괴물의 시점 화면 인듯 ) 높은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이는 강두와 세주의 모습.

**# 90 거대 하수도**

뿌옇고 탁하게 흐르는 하수 위로 누군가의 버려진 운동화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높게 뻗은 수직기둥들 사이로 세주를 등에 업은 강두의 모습 보인다.

강두 : 너 여깄는거 엄마 알어 ?

세주 : 엄마 없는데 ...

강두 : 아빠는 ?

세주 : 없어요.

강두 : ( 침묵 ) ...

세주 : 형은 있는데 없어요.

강두 : ......

말없이 세주를 추수려 업는 강두, 문득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는데 ...

저편 깊숙이 어둠 속에서 ... 괴물이 강두와 비슷한 속도로 슬금슬금 따라오고 있다 !

돌아서서 발걸음 멈추는 강두, 괴물도 그 자리에 멈춰선다.

공포에 휩싸여 강두의 몸을 꽉 조여오는 세주.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강두와 괴물 ...

강두, 하수구에 굴러다니는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고 묵묵히 괴물쪽으로 다가간다.

멀찌감치 서서 가만히 강두를 보는 괴물, 화살 꽂힌 눈에선 아직도 붉은 피가 흐른다.

괴물 앞으로 다가간 강두, 맥주병을 퍽 - 하고 깨며 ...

강두 : ( 나지막히 ) 넌 ... 도대체 뭐냐 ?

소름끼치리만큼 냉정하고 싸늘해진 강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야수같은 살기 ...

바라보던 괴물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긴 꼬리를 빳빳이 올려 세운다.

강두와 괴수 사이에 감도는 폭발직전의 팽팽한 긴장감.

등에 엎힌 세주 또한 바싹 오그라들며 강두의 어깨 뒤로 얼굴을 파묻는다.

강두 : ( 싸늘하게 ) ... 내가 널 먹겠다 ...

괴물 : ......

강두 : 널 ! ... 내 똥으로 만들겠다 ...

기괴한 선언 (?) 을 나지막히 내뱉는 강두 ... 고요한 정적이 일순간 감도는데,

문득 뒷 편의 동굴 입구 쪽에서 바람이 휙 - 불어오면서,

강 건너편 여의도 쪽의 시위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

바깥 냄새를 맡는 듯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고개를 슬며시 쳐드는 괴물

갑자기 밖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

강두와 세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함성소리가 들려오는 여의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괴물

**# 91 하수도 입구, 둔치**

정신이 돌아온 남주, 좁은 틈새를 비집고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신히 턱걸리 하듯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

우두두두 ... 한강물 쪽으로 돌진하는 괴물의 두 발이 남주의 얼굴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

놀라 다시 떨어질 뻔 하는 남주, 용을 쓰듯 위로 올라오는데

강두 : 남주야 ...

놀라며 돌아보는 남주, 웬 나자아이 하나를 어깨에 멘 강두가 달려오고 있다.

남주 : 오빠 !

강두 : ( 세주의 손을 남주의 손에 쥐어주며 ) ... 잘 부탁한다 !

엉겁결에 세주의 손을 잡고 선 남주,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

남주 : ( 버럭 ) 현서는 ?

강두 : 현서는 죽었다.

남주 : ... ?

너무도 투박하게 대답하는 강두, 이글거리는 눈 빛으로 강물 쪽을 바라본다.

시위대가 운전한 강건너 여의도 쪽으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가는 괴물

고개를 들면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원효대교의 모습

**# 92 원효대교 위**

여의도를 향해 원효대교 보도구간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강두,

난간 밖으로 강물 쪽을 내려다보면 ... 여의도로 헤엄쳐가는 괴물의 흰 물살이 보인다.

다리 위 보수공사판에서 ‘빠루’ 하나를 집어들며 전력질주하는 강두.

**# 93 여의도 둔치**

빡빡한 시위 인파들, 독특한 형태로 스크럼을 짜고 시위 구호를 외쳐댄다.

***“ 살포 반대 ! 즉각 철수 ! 살포반대 ! 즉각철수 ! ”***

***“ 바이러스 관련정보 완전 공개하라 ! 공개하라 ! ”***

***“ 시민생존 위협하는 억지살포 중단하라 ! 즉각 중단하라 ! ”***

등산용 배낭을 멘 채 시위 구호를 외치는 남일, 계속 한강쪽을 힐끔 거리는데 ...

주먹 치켜드는 사람들 틈새로 헤엄쳐오는 괴물의 하얀 물살이 보인다 !

남일, 배낭 옆지퍼를 찌이익 - 내려 화염병 하나를 꺼낸다.

시위대들 틈새로 헤쳐나가며 강물 쪽을 향하는 남일 ...

라이타로 불을 붙이자 화악 - 타오르는 화염병, 웅성대며 돌아보는 사람들 ...

집회 주최측으로 보이는 환경단체 티셔츠입은 남자들 두 명이 남일 쪽으로 나서며 ...

주최 1 : 이봐요, 오늘 평화시윈데 ... 당신 뭐야 ?

주최 2 : 불 꺼요 불꺼 ! 위험해 !

남일 : ( 버럭 ) 시끄러 ! 다들 피해 - !

화염병 휘돌리며 강물 쪽으로 달려나가는 남일, 양쪽으로 쫘악 갈라지는 시위대들,

여자 시위대 중 누군가 헤엄쳐오는 괴물을 발견하고 찢어지는 비명 지른다 !

소리치며 흩어지는 사람들을 거슬러 강쪽으로 달려가던 남일,

문득 하늘 위 (?)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괴성에 고개를 치켜 드는데 ...

강두 : 으아아 - !

남일 : ... !

까마득한 원효대교 위 ‘빠루’ 를 손에 쥐고 미친 듯 달려오는 강두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 94 원효대교 위**

질주하던 탄력 그대로 거침없이 점프 - 강물로 뛰어드는 강두 !

장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헤엄치는 괴물 위로 곤두박질치는데 ...

강두 : ( 괴성 ) 아악 - !

**# 95 여의도 둔치**

남일의 시점으로 허공을 가르며 괴물 위로 내리꽂히는 강두 !

솟구치는 물보라 ... 부글부글 끓는 물 속, 강두도 괴물도 잠시 보이지 않는다.

놀란 사람들, 멍하게 바라보는데 ... 곧장 물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괴물 !

등에 꽂힌 ‘빠루’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사람들 쪽으로 달겨든다.

맨 끝에 뒤쳐진 대학생 하나가 넘어져 구르자 그 쪽을 노리고 달려가는 괴물.

순간 섬광같이 날아가는 남일의 화염병, 괴물과 대학생 사이에서 정확하게 터진다.

타오르는 화염에 움찔하는 괴물, 불기둥을 피해 다른 대학생 쪽으로 돌진하는데,

또다시 괴물 앞에 퍽 - 터져오르는 화염병, 그 틈에 일어나 도망가는 대학생

왼손에 계속 쥐고 있는 불붙은 화염병에 새로 꺼낸 화염병을 불 붙여 연속으로 투척하는

남일의 현란한 개인기 ... 급소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화염병 세례에 머뭇대는 괴물,

불쾌한 듯 남일 쪽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남일을 향해 달려온다 !

괴물이 달려오는 코스가 잔디밭 위라서 화염병 공격이 불가능 함을 깨닫는 남일,

성큼성큼 뒷걸음으로 후퇴하나 싶더니 ... 대뜸 가로등을 향해 언더쓰로우로 화염병을 날린다 !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가로등 기둥을 향해 날아가는 화염병 ...

돌진해오는 괴물이 가로등 바로 옆을 지나는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기둥에서 퍼 - 엉 터지는 화염병 ... 괴물의 꼬리가 불길에 휩싸인다.

우뚝 멈춰서서 불 붙은 자기 꼬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괴물 ...

고기 타는 냄새가 좋은 듯 킁킁대며 냄새를 맡는 듯한 엽기적인 광경.

순간 진압나온 전경들 중 한 명, 괴물을 향해 촤루탄 직격탄을 발사한다.

최루탄 터지는 빵 - 소리와 함께 화들짝 정신차리듯 강물 쪽으로 질주하는 괴물

꼴사나운 포즈로 물 속에 꼬리를 담그자 치이익 - 연기를 내며 꺼지는 불꽃

그때 바로 근처 강물 속에서 눈을 뜬 채 위로 스르르 ... 올라오는 강두의 얼굴

마치 강바닥을 계속 걸어온 사람처럼 뚜벅뚜벅 물 위로 ‘ 걸어나온다 ’

고개를 돌려 괴물 쪽을 바라보는 강두.

여전히 꼬리를 물 속에 담근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강두를 바라보는 괴물

강두, **‘ 오리배 타는곳 ’** 표지판을 기둥부분만 번쩍 뽑아든다.

창처럼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변한 표지판을 들고 괴물 쪽으로 돌진하는 강두 !

강두에게 다가오던 괴물, 오리배 들을 묶어놓은 쇠사슬이 몸에 걸려든다.

다리와 목, 등에 곶힌 ‘빠루’ 에 이리저리 얽혀버리는 쇠사슬 ...

괴물이 쇠사슬에 엉켜 주춤주춤 하는 순간, 괴물 정면에서 흉기로 일격을 가하는 강두 !

마침내 괴물과 강두의 원초적인 육박전이 펼쳐지는 순간,

둔치 위쪽의 시점 ... 끄트머리 계단 아래에서 벌어지는 둘의 사투는 보이지 않고,

요동치는 괴물의 등짝과 꼬리일부, 강두가 휘두르는 흉기 일부만 보였다 안보였다 하면서

‘ 짐승 ’ 의 포효와 강두의 괴성이 무시무시하게 터져나오나 싶더니 ...

순간 계단 아래에 솟구쳐 올라오는 강두와 그 뒤를 바짝 따라 올라오는 성난 괴물 ...

몸에 쇠사슬이 얽혀 오리배 3 대를 주렁주렁 뒤에 매단 채 강두에게 돌진한다.

흉기로 괴물의 아가리를 공격하며 백스텝 밝는 강두, 교각들 있는 쪽으로 도망간다.

강두 페이스에 말려든 괴물, 쇠사슬의 오리배가 교각에 얽혀 더 이상 전진 할 수 없게 된다.

끈에 묶인 맹견을 코 앞에서 살살 약올리듯 괴물 앞으로 바짝 다가가 결정타를 노리던 강두

기습적으로 휘두른 괴물의 꺼리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나뒹군다.

남일 : ( 나려가며 ) 형 - !

강두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지르는 남일, 마음은 다급한데 거리는 멀고 ...

남일의 시점으로 ... 원효대교 위 쪽, 누군가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남일 : 씹 - 팔 ... ( 버럭 ) 빨리 안오고 뭐 해 !

쓰러진 강두를 끝장내려 덤벼드는 괴물, 그러나 팽팽한 쇠사슬이 전진을 가로막는다.

실신한 강두를 불과 이삼미터 코 앞에 놓고 미칠 듯 낑낑대는 괴물

남일 : ( 달리며 ) 챤스다 ! ( 다리 위를 향해 ) 부어 - 지금 !

원효대교 인도 위를 뒤뚱뒤뚱 걸어오는 누군가 ... 휘발유통을 든 노숙자다.

**# 96 다리 위**

노숙자 : 저 새끼가 반말은 ...

칭얼거리면서도 휘발유통 뚜껑을 팽그르르 - 돌려여는 노숙자,

고개를 내밀어 난간 밖을 내려다보면 ... 쓰러진 강두에게 아가리를 들이민 채,

쇠사슬에 팽팽하게 묶여진 괴물의 모습이 빤히 내려다보인다.

**# 97 둔치**

남일 : ( 달리며 ) 빨리 부어 !

남일이 악을 쓰기가 무섭게 난간 위에서 그대로 휘발유 들이 붓는 노숙자

폭포처럼 쏟아지는 휘발유가 투타타타 - 괴물의 등짝을 때리자,

고개를 슥 쳐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괴물,

마치 빗물을 받아먹을 때처럼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휘발유를 맛본다.

금새 온 몸이 휘발유로 뒤 덮이는 괴물 ...

달려가며 마지막 하나 남은 왼 손의 화염병, 오른 손으로 옮겨 쥐는 남일 !

병을 휘휘 휘돌리며 최후의 일격을 노리는 순간,

미끌 -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화염병 ... !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퍼석 - 깨져버린다 !

남일 : 으억 - !

남일 발 옆에서 허무하게 타오르는 깨진 화염병 ...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남일의 두 눈이 뒤집히는 순간 ...

화면 안으로 휙 - 들어오는 화살촉 !

남주가 깨진 화염병의 불심지를 화살촉 끝으로 쿡 - 찌른다.

화염병 심지 코르크 부분이 화살 끝에 꽉 끼워지며 졸지에 불화살이 탄생하는 순간.

50미터 전방의 휘발유 투성이 괴물을 향해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남주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호흡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

완전한 사일런트 ... 아수라장의 둔치가 적막 속에 고요해지는 한 순간 -

피육- 날아가는 불화살의 궤적

언젠가 희봉이 경탄했던 그런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남주의 불화살 ...

... 명중 !

솟구치는 화염에 휩싸이는 괴물의 몸뚱이 !

일시에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환호성

찢어질듯한 비명 토해내며 불덩이에 휩싸이는 괴물

화염의 열기와 괴물의 찢어지는 비명에 번쩍 눈뜨며 정신차리는 강두

바로 눈 앞에는 불길에 휩싸인 괴물의 발광하는 몸부림 ...

순간 괴물의 미친듯한 몸부림으로 오리배에 묶인 쇠사슬이 뚜둑 - 끊겨져 나오고 ...

길다란 쇠사슬을 꼬리처럼 매달고 강물을 향해 달려가는 괴물 !

본능적으로 달겨들어 쇠사슬 움켜지는 강두,

돈치 위를 끌려가면서 쇠사슬을 팔에 칭칭 동여감는다.

불길에 휩싸인 채 돌진하던 괴물, 강물 바로 십여미터 앞에서 속력이 뚝 - 떨어진다.

쇠사슬을 팔에 휘감은 강두가 지형지물에 의지하며 괴력으로 괴물을 끌어당긴다 !

강두 : 으 ... 으으으 ...

또 하나의 괴물처럼 눈과 얼굴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두,

쭉 - 쭉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쇠사슬을 끌어당기는데 ...

근처에서 달려온 시위대와 전투경찰, 남일, 남주등 모두 쇠사슬에 달려든다.

졸지에 줄다리기 대형이 되어 괴물을 육지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

강물을 바로 코 앞에 두고 활활활 불길에 타오르는 괴물,

물 속에 못들어가고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휙 - 뒤를 돌아본다.

쇠사슬 움켜쥔 채 섬칫 - 하는 사람들 ...

순간 강물이 아니라 강두와 사람들 쪽으로 돌진해오는 괴물 !

불덩어리에 휩싸인 채 이판사판으로 돌격해온다.

경악하여 도망가는 사람들.

순간 ... 사람들 거스르며 홀로 전진하는 강두, 떨어져있던 ‘흉기’를 다시 집어든다 !

중세의 기사가 창을 겨누듯 화염을 뿜으며 달려오는 괴물에게 창 끝을 겨누는 강두.

화염에 휩싸인 아가리를 쩍 벌리고 돌진해오는 괴물,

그 아가리 한 복판에 그대로 쇠창을 푸 - 욱 쑤셔박는 강두 !

불에 타면서 쇠창에 꽂힌 채 ... 그래도 계속 한발 한발 강두 쪽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괴물

부릅뜬 강두의 눈동자 속, 불타는 괴물의 얼굴이 이글거린다.

있는 힘을 다해 쇠창을 움켜 쥔 강두 ... 괴력으로 버티며 뒤로 밀리지 않는데 ...

조금더, 조금더, 아가리를 강두 쪽으로 탘욕스럽게 들이미는 괴물,

그럴 수록 쇠창은 점점 더 깊이 자신의 몸 속으로 박힌다.

괴물의 찐득하고 뜨뜻한 피가 쇠창을 타고 흘러내려 강두의 손을 휘감는데 ...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그저 강두를 삼키겠다는 증오와 탐욕에 미쳐버린 듯,

점점 더 아가리를 강두 쪽으로 밀어붙이는 괴물

강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괴물의 불타는 아가리.

이글이글 ... 화염의 열기에 붉게 물드는 강두의 얼굴,

문득 강두의 두 눈에 때아닌 눈물이 맺히는가 싶더니,

쇠 창을 움켜쥔 손을 슬며시 놓는 강두 ...

화염에 휩싸인 괴물이 스르르르 - 반원을 그리며 옆으로 넘어간다 !

털퍼덕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에 쓰러지고 ...

둔치 위의 사람들 아무도 환호하거나 박수치지 않는다.

그저 불타는 괴물과 홀로 선 강두를 침묵 속에 바라볼 뿐 ...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괴물을 향해 저벅저벅 다가가는 강두,

괴물의 눈에 여전히 꽂혀있는 남주의 화살을 손으로 덥썩 움켜쥔다.

끙 - 응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을 뽑아 내는 강두

불에 익은 괴물의 커다란 눈알이 화살에 꽂힌 채 뿌 욱 - 딸려 나온다.

마치 커다란 타조알을 꼬치구이 한 듯한 형상 ...

말 그대로 ‘ 괴물을 먹으려 ’ 는 듯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눈알을 입으로 가져가는 강두.

소리없이 바라보는 남주와 남일 ...

순간 온천지를 뒤흔드는 애애앵 - 싸이렌 소리 !

어리둥절 주변을 둘러보는 강두와 사람들 ... 소리가 나는 원효대교 쪽을 올려보면

다리 난간 옆에서 붉은 램프를 번쩍이며 뭔가가 스르르 내려온다.

그것은 ...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에이젼트 옐로우 !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 서서히 내려오는 그 특수장비의 모습은 ...

괴물이 처음 한강다리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형상과 꽤 흡사하다.

강 저편 마포대교, 한남철교에도 ...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속속 드러내는 에이젼트 옐로우.

**# 98 어딘가**

난데없이 등장하는 차가운 색조의 공간 ... 아마도 원격 통제실 쯤 되는 듯,

은은한 어둠 속에 모니터 화면들이 보이고 양복차림의 남자들 가득하다.

온화하고 품격있는 인상의 미국인 남자 A 와 B, 한국측 통제권자로 보이는 갑 과 을,

그 뒤로 ( 씬 60의 ) 미국 의사의 모습도 살짝 보인다.

A : 열두시 정각입니다. 살포하세요.

유선 콘트롤 기기를 손에 쥐고 있는 한국 남자 갑,

지시대로 ON 스위치를 누르려다 ... 다시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갑 : 지금 살포지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 CNN LIVE '** 마크가 구석에 보이는 모니터 화면 ...

강두와 불타는 괴물, 시위대의 모습이 깨알처럼 조그맣게 보인다.

A : 예정된 시간에 살포해야 됩니다. 스위치 누르세요.

갑 : 작동지침서에도 반경 100미터 이내에 사람들이 있을땐 살포하지 말라고 ...

A : 그건 권장사항이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괜찮으니 살포해요 !

갑 : 보세요 ( 지침서 펼치며 ) 살포시 100미터 이내 있었던 사람들에겐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B : 저기 ... 30분만 연기하면 어때요 ? 사람들을 완전히 해산시킨 다음에 ...

A : ( 냉정하게 ) 예정대로 합시다. 지금 살포해요.

뭔가 싸늘해진 분위기 잠시 적막이 흐르는데 ...

가만히 앉아만 있던 ‘ 을 ’ , 갑자기 콘트롤 스위치를 휙 - 빼앗더니

을 : ( 한국말로 ) 아니 지금 ... CNN 쌩중계까지 나가는 판에 ...

ON 스위치를 꾹 - 눌러버리는 을 !

**# 99 여의도 둔치**

순간 모든 에이젼트 옐로우들, 붉은 램프의 껌뻑임이 뚝 -멈추더니

요란하게 싸이렌 소리도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갑작스런 적막 속에 에이젼트 옐로우를 멍하게 올려다보는 사람들

순간 퍼억 - 터져나오는 황색 가스 ! 동시에 한강 수면으로 쏟아지는 황색 분말 !

겁에 질려 비명지르며 흩어져 달아나는 시위대와,

스크럼 짜며 오히려 살포지점을 향해 돌진하는 결사대가 뒤죽박죽 뒤엉키는 가운데,

대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애타게 서로를 찾는 강두와 남일, 남주 ...

그러나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황색 뭉개구름이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친다.

숨넘어갈 듯 콜록콜록 기침하며 비틀대는 사람들, 가스 속에서 픽 - 픽 쓰러지기 시작하고,

서있는 사람들은 귀에 큰 통증이 오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귀를 손으로 막는다.

강두 : ( 귀를 막으며 ) 아 ... 아아 ...

얼굴 찌푸리며 귀 속에 손가락 넣는 남일, 손가락을 빼보면 ... 붉은 피가 묻어나온다.

강두 쪽으로 다가오던 남주도 귀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쓰러진다.

주변의 사람들, 다들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고 쓸러지고 ... 생지옥의 풍경이다.

코와 귀에서 피 흘리는 강두, 빈 휘발유통을 여전히 손에 든 노숙자,

귀에서 흐르는 피를 자꾸만 양 볼에 시뻘겋게 퍼뜨리며,

노숙자 : 아 ... 아 ... 씨발 ... 니미 조또 ... 옛날에두 이런 일이 있었는데 ...

마치 무슨 ‘ 기시감 ’ 이라도 느끼는 듯 괴이한 표정으로 횡설수설 하는 노숙자

뭉게뭉게 퍼져나가는 황색 가스 속에 파묻힌다.

**# 100 어딘가**

검은 화면 ... 적막 속에 화면 서서히 페이드 인 되면,

누군가의 시체 인 듯 얼굴을 덮은 하얀 천이 직부감으로 보인다.

잠시 후 스르르 내려가는 흰 천 ... 강두의 얼굴이 드러난다.

슥 - 두 눈을 뜨는 강두, 조용히 주변을 살핀다.

흰 이불을 헤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강두, TV속으로 가서 스위치를 켜면

환자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전체 병실의 모습이 그제서야 드러난다.

TV 켜지자 하나 둘 침대에서 일어나는 환자들,

시위대 중 낮익은 얼굴들과 노숙자, 남일 등등의 모습이 보이고 ...

남일의 침대 옆, 간병인 보조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총포사 처녀의 모습도 보인다.

남 1 : ( 버럭 ) 몇 대 몇 ?

강두 : ( 버럭 ) 일 대 영 ! 전반 끝나가 !

밤늦은 병실, 몰래 축구중계를 보는 분위기인데도 큰 소리로 꽥꽥대는 강두와 남자들

남 1 : 어디가 일 ?

강두 : 우리가 일 !

노숙 : ( 안들리는 듯 ) 어디가 일 ?

강두 : ( 터 크게 ) 우리가 일 !

노숙 : 어디 ?

강두 : 우리 !

노숙 : ( 귀에 손가락을 쑤셔보며 ) 아 - 또 피나 씨바 ... 갈 수록 더 안들려 !

짜증스레 보고 있던 남일, 총포사 처녀에게 눈짓을 하며 툭 친다.

쪼르르 ... 병실 입구로 가는 처녀, 살그머니 밖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본다.

축구화면에 열을 올리는 강두와 사람들.

TV 중계 캐스터가 ***“ 전반전이 끝나는대로 뉴스 속보 보내드리겠습니다 ”*** 라고 했던대로,

주심이 휘슬 불자마자 곧바로 < 뉴스 속보 > 화면 나온다.

강두 : 어 ... 이거 나오네 !

***앵커 : 조금전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30분 미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이번 한국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성화면 보시겠습니다.***

미 의회 기자회견장 화면 위로 방송국 동시통역사의 목소리가 까리며 ...

***동시통역 : ... 이번 사태는 ... 닥쳐올 위협의 ‘가능성’을 놓고 빠른 ... 아,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오류였으며 ... 결국은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 따라서***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시작된 사태였다 ...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

***... 음 ... 이번 사태를 통해 한반도에서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 발생 가능한 바이러스***

***관련 위기에 대해 ... 미국과 한국 ... 한미양국이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가에 관한 ...***

동시통역사의 떠듬대는 즉석 더빙으로 인해 더더욱 뭐가 뭔지 알아듣기 힘든 발표내용.

그저 멍 - 하게 바라보던 환자들 중 누군가,

남 2 : ( 버럭 ) 뭐래는 거야 ?

남 1 : 전반전 하이라이트나 봅시다 !

남 3 : 아 좀 놔둬 봐요. 뉴스 !

노숙 : ( 버럭 ) 전반 하이라이뜨 !

사람들 아우성에 채널 돌려주는 강두 < 전반전 주요장면 > 화면 나온다.

골챤스 화면 보며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 다들 귀가 안들려 서로 꽥꽥거린다.

구석쪽 침대에서 잠이 깬 남주는 이상한 요가 자세로 몸을 뒤틀고 있고 ...

문 앞에서 망보던 총포사 처녀, 갑자기 병실 전등을 껐다켰다 하며 급박한 손신호 보낸다.

TV 끄며 침대로 점프하는 강두, 순식간에 각자의 침대로 날아가는 사람들 ...

눈을 의심할 만큼 일순간에 ‘취침모드’ 로 뒤따르는 병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키작고 다리 굵은 간호사

적막 속에 침대 머리맡 링겔 병들 하나씩 체크하며 손에 든 차트에 표시를 하고 ...

**# 101 한강둔치, 매점 내 / 외부**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 아무도 없는 텅빈 둔치

온통 하얗게 눈이 쌓인 둔치에 매점 하나만 외롭게 형광등 불빛을 밝히며 서있다.

선풍기 모양의 전열 난로가 조용히 좌우로 회전하는 아늑한 매점내부,

보기만 해도 따뜻한 전열기의 주황색 광선이 강두의 얼굴을 발그스레 밝혀주는데 ...

귀 속을 손가락으로 몇 번 후비더니 연고 같은 것을 귀 속에 바르는 강두,

천하장사 소세지를 손에 쥔 채 잠들어 있는 세주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강두, 이불을 끌어 당겨 세주 턱 밑까지 덮어준다.

계속 눈 내리는 창 밖, 깜깜한 어둠 속을 가만히 바라보던 강두.

문득 뭔가 보았는지 또는 뭔가 들었는지 ... 어둠 속으로 신경을 집중한다.

강두 시점으로 화면가득 시커먼 창 밖의 암흑 ...

쌓인 눈을 밟는 ‘ 뽀드득 - ’ 소리가 강두 귀에 또렷이 들려온다.

조용한 눈빛으로 둔치의 어둠 속을 응시하는 강두.

카메라 또한 뭔가 있는 것 같은 암흑 속을 향해 조용히 전진하는데 ...

눈을 맞으며 매점 앞에 나와 서있는 강두

조용히 쪼그려 앉으며 주머니에서 황도캔 하나를 꺼내 발 앞에 놓는다.

딱 - 황도캔의 뚜껑을 열어놓는 강두,

내려오는 눈송이들 황도 위로 떨어지는 사르르 - 녹는다.

다시 매점 안의 강두, 조용히 창 밖을 내다보는 시선 ...

눈을 맞는 황도캔 바로 앞까지 ( 현서의 ) 조그만 발자국이 또박또박 찍혀있다.

아무도 없는 순백의 둔치에 눈은 계속 내리지만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잠든 세주를 바라보며 빙긋 - 웃는 강두

뭔가 좋은 꿈을 꾸는지 자고 있는 세주도 빙긋 웃는다.

**THE END**

순간 잠든 세주의 귀에서 붉은 피가 쪼르륵 흘러나온다.

새하얀 베개에 도도독 - 떨어지는 귀엽고 빨간 핏방울

크리스마스 캐롤 < Oh Holy Night > 시원하게 울려퍼지며 엔드 크레딧 올라간다.